



세월호 참사와 서울대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거국민적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오전 7시 본 회 徐廷和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관악출추

세월호 침몰이란 최악의 안전참사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온 국민이 슬픔을 함께하면서도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감, 죄책감 등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있다.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가 아닌 人災였다. 그래서 찬 바닷속에서 하나 둘 건져 올려지는 어린 학생들의 주검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고.

하지만 국민은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를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사

때문에 안전을 버렸고, 관리감독기관은 돈 때문에 눈을 감았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탐욕의 제물이 됐다.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온 우리는 모두가 이번 사건의 공범일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의 전당이자 최고의 지식공동체로서 ‘노블레스’(사회적 혜택)는 누려왔지만 그에 따른 ‘오블리주’(모범적 의무)의 이행에는 소홀한 것 아닌가를 심각하게 반문해 봐야 한다.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에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재난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희생자 추모와 유족 위로, 희생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 관련 법규 정비라는 수습책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 우리 모두의 아픔

과와 함께 국무총리까지 사퇴를 표명했지만, 공식사회의 무능과 초기 위기대응 실패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런 모습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인가”라며 격앙하고 있다. 선실에 갇혀있는 3백여명의 대부분이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었는데도 단 1명도 구출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침몰한 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호란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이번 재난사고를 지켜보면서 우리 나라의 각계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서울대인으로 서의 공동책임의식을 공감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위기관리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묻고 있다. 이번 참사의 1차적 범인은 ‘탐욕’으로 밝혀지고 있다. 船社는 돈

다. 우리 모두는 무릎 꿇고 이번 사고가 한국사회 그 자체가 빚어낸 비극이란 인식하에 위험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각자의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답을 써야 한다.

세월호 사고는 리더십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초기 재난극복 컨트를 타위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리더십은 위기에 더욱 빛난다. 복잡다단한 오늘날을 ‘위기의 일상화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리더십은 잔잔한 호수에서 구경을 외치며 조정경기를 하는 식의 ‘관리형 리더십’이 아니라 계곡에서 보트를 타고 급류를 헤쳐 나가는 ‘위기극복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침 모교는 앞으로 4년간 서울대호를 이끌어갈 최초의 법인화 선장(총장)을 뽑는 중이다. 차체에 위기극복형 리더십의 총장을 기대해본다. (徐玉植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본보 논설위원)

모교 총장 최종 후보 3명…이사회 선정 거쳐 7월 임명

모교 제26대 총장 최종 후보로 자연대 물리전문화부 吳世正(물리71-75)교수, 법대 법학부 成樂寅(행정69-73)교수, 공대 재료공학부 姜泰晋(섬유공학71-75)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모교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지난 4월 16일(연건캠퍼스), 18일(관악캠퍼스) 총장예비후보자

공개 소견발표회를 연 데 이어 25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교직원 정책평가단의 정책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4월 30일 제7차 회의에서 정책평가단 평가(40%)와 총추위 평가(60%)를 반영해 최종 후보자 3명을 확정했다. <22면에 계속>



자연대 吳世正교수



법대 成樂寅교수



공대 姜泰晋교수

느리나무광장

필자는 얼마 전까지 동아일보 기자였다. 신문사 편집국의 특징 중 하나는 서울대 동문들이 많다는 거다. 많아도 너무 많다. 필자의 입사 동기 중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대 출신 기자들은 타대학 출신들과는 달리 대학 동문 모임을 잘 안 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편집국에서 서울대 동창모임 열심히 하면 타대학 출신들은 생존공간이 없어진다. 공정경쟁이 안 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 동창회 안에서 필자의 역할이 영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만 27년 신문기자 하면서 적어도 동아일보 내에서는, 동아일보 기자들끼리는 서울대 모임을 거의 안 했다. 동창회 입장에서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이것을 ‘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기자생활을 접는 마당에 ‘기자 시절 필자가 잘한 일’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다.

기자들도 일과를 마친 후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 삼아 동료들과 한 잔 걸치곤 한다. 이때 주로 상사 또는 선배들이 안주거리로 오른다. 후배들과 술자리를 할 경우, 그

리고 상사를 안주로 씹는 후배가 있을 경우, 필자는 말한다. “웬만하면 판 사람 욕은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는 반응에 이렇게 답한다.

“기자는 돈 받고 욕하는 사람이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대가로 밥벌이하는 사람이다. 더러운 직업이다. 이왕 그렇다면 욕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프로답게 해야 한다. 논거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한다. 대안까지 제시하며 한다면 더 좋겠지. 인간 세상 어차피 욕 나 오게 돼 있다. 욕이 넘쳐나는 거다. 그냥 터져 나오는 욕은 아마추어들에게 맡기자. 우리는 한 번을 해도 돈을 받

고, 제대로 욕을 하자. 그래서 하는 말이다. 돈 안 주면 욕하지 마라. 그래야 프로다.”

대개의 경우엔 이 국면에서 “아, 그렇군요” 소리가 나온다.

“한마디를 해도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문제 제기하라는 것이군요.”

“비판을 통한 비전 제시라는 기자직의 존재론적 소명을 다시금 되뇌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름 욕을 잡는다.

하지만 가끔 고개를 외로 끄는 까칠한 후배를 만나기도 한다.

“아니 선배, 그렇다면 공론의 장,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만 욕을 하게 되잖아요. 신문사 오너나 국장, 부장에게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선배가 그렇게 조직 친화적 존재였어요?”

더 난감한 반응도 있다.

“그리 말씀하시니 선배가 그동안 쓴 기사나 칼럼이 얼마나 ‘프로다운 욕하기’였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봐주세요.”

대화가 이 지점에 이르면 막걸리의 힘을 빌려 호기 있게 쏟아낸 말들을 황급히 주워담고 싶어진다. 내가 27년간 어떤 기사들을 썼는지도 두렵다. 불현듯 이것들을 잠시 감춰두고 싶다. 아아, 감당 못할 기록의 무서움이었어!

돈 받고 욕하기

許承虎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병든 지구

吳龜鎭(조선공학65-69)
컨설턴트·시인

자연의 복원력이 훼손된 지구에서
유행을 바꿔 가며 소비를 부추기나
경제가 급하더라도
근본조치 해야지

세계인구 칠십이억 자원고갈 가깝고
온난화 기상이변 기아문제 심각해도
가파른 인구증가는 멈출 기미 없는데

경쟁적 물질문명 이대로 계속되어
임자 없는 대기와 해수마저 오염되면
디지털 다음 세대는
생존할 수 있을까.

동문칼럼

朴槿惠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해서가 아니라 통일은 분명 21세기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이다. 건국 이래 반세기 동안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까지 놀라운 성취를 달성해 온 한국사회지만,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대치상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 언제라도 심각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음은 지난 수년의 갈등과 최근의 긴장상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감지 가능하다. 분단으로 인한 각종 비용,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도 최종적으로는 통일의 과제로 연결된다.

이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모교 통일평화연구원(설립 당시는 통일연구소)이 2006년에 설립됐다. 10년 기간으로 추진된 모교 통일학 연구사업을 총괄하면서 학내 다양한 분야의 통일 과제를 기획, 추진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2007년부터 매년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 분석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과 북

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각종 연구는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널리 인용된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의식조사’는 가장 공신력 있는 통일 관련 자료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남북통합지수’나 ‘북한국제화’, ‘북한사회변동연구’도 학계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날이 바뀌는 남북관계의 현안들에 대한 본 연구원 소속 전문가의 논평은 거의 매일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신뢰도 높다. 최근 한 언론기관은 외교·안보 분야 연구소 가운데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등 규모가 큰 정부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모교 통일평화연구원을 10대 싱크탱크로 선정하기도 했다.



朴明圭
(사회74-78)
모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모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4월 20일로 연구원은 창립 9년차를 맞이했다. 설립을 책임졌던 2006년 이래 4번의 원장 임기를 마쳤으나 다시 책임이 연장돼 심적 부담이 적지 않다. 연구원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의 기대를 고려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욱 크고 무거운 것이다. 총장님 이하 모교 교수님들, 또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들의 기대 역시 큰 힘이자 동시에 숙제다. 지난 4월 17~18일에 ‘경계를 넘어선 평화구축과 통일구상’이라는 국제심포지엄에서 모교의 다양한 연구 단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사회의 시장화 상황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다. 통일학연구총서와 신서를 간행하며 남북한의 통합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남북통합지수도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0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HK) 지원을 받아 ‘평화인문학’ 정립을 위한 연구에도 진력하고 있다. 수년간 모교 최우수연구소로 평가됐을 뿐 아니라 2013년 한국연구재단에 의해서 국내 최우수연구기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들을 통합적 통일연구네트워크로 묶는 작업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법, 의료, 농학, 공학, 인문, 예술, 정보,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전문영역이 참여하는 통합적 통일연구에 모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계의 동문 여러분도 모교의 통일연구와 평화연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통일평화연구원의 활동을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龍,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侁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許承虎, 李先敏, 金昌均, 全榮基, 李相起, 姜孝祥, 鄭星姬, 金光德, 鄭在權, 申然琇, 姜京希, 鄭然旭, 權石泉,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洪智英, 金希媛, 李佳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埭

총동창회 새 임원진 명단

지난 3월 21일 정기총회 결의에 의해 제25대 회장단이 새로 구성됐다. 이에 고문(13명), 회장단(67명),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19명), 동창회보 논설위원(59명), 관악대상 운영위원(26명),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동창회장(54명)을 소개한다. (입학·가나다순)

동창회 고문		權 彥 赫 고문·의학41-47 모교 의대 명예교수	白 樂 皖 고문·의학44-51 前인제학원 이사장	河 永 基 고문·정치44-48 前한국은행 총재	金 相 廈 고문·정치45-49 삼양사 회장
姜 信 浩 고문·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金 鍾 泌 고문·사회교육46입 前국무총리	白 文 基 고문·조소46-50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金 泳 三 고문·철학47-51 前대통령	金 在 淳 고문·경제47-52 샘터사 고문	李 賢 宰 고문·경제48-53 호암재단 이사장
鄭 元 植 고문·교육48-54 모교 사대 명예교수	金 德 柱 고문·법학52-56 前대법원장·변호사	동창회 회장단			林 光 洙 명예회장·기계공학48-52 입광토건 명예회장
吳 然 天 명예회장·정치70-74 모교 총장	徐 廷 和 회장·법학51-55 새누리당 상임고문	孫 一 根 상임부회장·법학51-64 가천대 석좌교수	李 吉 女 부회장·의학51-57 가천대 총장	朴 熙 伯 부회장·의학51-57 박희백정형외과 원장	李 海 遠 부회장·행정51-55 한국우드워드 회장
崔 斗 衡 부회장·행정51-55 성원개발 회장	裴 命 仁 부회장·법학52-56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	成 百 詮 부회장·토목공학52-56 한국해외기술공사 회장	李 世 中 부회장·행정53-57 현대합동법률 변호사	鄭 然 世 부회장·토목공학53-57 한국선급엔지니어링 회장	李 金 器 부회장·약학55-59 일동후디스 회장
孔 大 植 부회장·기계공학56-60 대영테크시스템 사장	郭 永 駟 부회장·토목공학56-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金 讚 淑 부회장·치의학56-60 정아치과병원 이사장	尹 世 榮 부회장·행정56-61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李 相 周 부회장·교육행정56-60 前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李 垞 鎔 부회장·경제56-60 대림산업 명예회장
鄭 世 煜 부회장·법학56-60 명지대 명예교수	鄭 潤 煥 부회장·임학56-62 일성화학 사장	丁 海 昌 부회장·법학56-60 좋은합동법률 대표변호사	孫 京 植 부회장·법학57-61 CJ그룹 회장	安 秉 勳 부회장·행정57-61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李 洙 彬 부회장·경제57-61 삼성생명보험 회장
崔 秉 烈 부회장·행정57-64 前국회의원	洪 性 大 부회장·수학57-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朴 成 勳 부회장·기계공학58-63 모간 사장	吳 仁 錫 부회장·행정58-62 Philip Investment 회장	禹 仁 性 부회장·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姜 寅 求 부회장·수의학59-64 대영EEC 회장
金 殷 宗 부회장·경제59-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孫 吉 丞 부회장·상학59-63 SK텔레콤 명예회장	李 炯 均 부회장·정치59-64 한국기자협회 고문	趙 炳 祐 부회장·섬유공학59-64 유풍 회장	玄 明 官 부회장·법학59-63 한국마사회 회장	金 永 斌 부회장·법학60-64 김&장법률 대표변호사
朴 浩 田 부회장·경영62-66 삼덕 회장	金 明 子 부회장·화학62-66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朴 容 眩 부회장·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	文 昌 克 부회장·정치68-72 모교 사대대 초빙교수	崔 鍾 璨 부회장·무역68-72 모교 행대원 초빙교수	卞 柱 仙 부회장·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劉 常 夫 부회장·토목공학60-64 포스코 고문	黃 彩 皓 부회장·교육심리61-65 前명성인토피아 부회장	金 慶 漢 부회장·법학62-66 KH법률연구소 변호사	邊 榮 進 부회장·건축66-70 홍익대 초빙교수	金 平 祐 부회장·법학63-67 서일합동법률 변호사	辛 鉉 雄 부회장·지리64-68 웅진재단 이사장
吳 明 부회장·전자공학64-66 동부그룹 전자총괄 회장	金 鐘 燮 부회장·사회사업66-70 삼익약기·SPECO 회장	金 鍾 燮 부회장·사화사업66-70 삼익약기·SPECO 회장	邊 榮 進 부회장·건축66-70 홍익대 초빙교수	文 昌 克 부회장·정치68-72 모교 사대대 초빙교수	崔 鍾 璨 부회장·무역68-72 모교 행대원 초빙교수

洪錫炫  부회장·전자공학68-72 중앙일보 회장	金仁圭  부회장·정치69-73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李鍾基  부회장·경영69-73 상영무역 회장	張重桓  부회장·의학69-76 장중환산부인과 원장	裴仁俊  부회장·철학70-74 동아일보 주필	鄭夢準  부회장·경제70-75 국회의원	愼昌宰  부회장·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회장	
鄭忠始  부회장·화학공학72-76 태경산업 사장	崔守鉉  부회장·생물교육75-81 금융감독원 원장	柳津  부회장·영문78-83 풍산 회장	金英豪  부회장·사회교육80-84 감사원 사무총장	金相憲  부회장·사법82-86 네이버 사장	鄭八道  부회장·AIP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李相赫  감사·행정54-58 이상혁법률 변호사	
朴英俊  감사·상학60-66 에일컨설팅그룹 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李禮植  이사·약학46-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趙弼濟  이사·조선항공공학46-50 세양주택 회장	曹基浩  이사·화학교육54-58 기호물산 회장	
權永昊  이사·약학55-59 덕홍상사 회장	安聖哲  이사·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	鄭啓泳  이사·상학61-66 원일전선판매 회장	朴明潤  이사·보대원74-76 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	金炯周  이사·전자계산78-82 모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金秉順  이사·AMP4기 한국구아노 이사	徐廷和이사장, 孔大植상임이사, 林光洙·孫一根·李吉女·鄭世煜·李炯均·辛鉉雄이사, 李相赫·朴英俊감사는 본 회 회장단 겸임.	
동창회보 논설위원				金哲洙  논설위원·법학52-56 모교 법대 명예교수	金鎮銅  논설위원·국문58-64 내일신문 논설고문	宋丙洛  논설위원·경제59-63 모교 사회대 명예교수	安炳璨  논설위원·신대원71-75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丘月煥  논설위원·사회60-67 순천향대 초빙교수	金好俊  논설위원·사회61-65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宋鎮赫  논설위원·정치61-65 언론인	李五峰  논설위원·교육61-70 아시아N 편집위원장	洪性萬  논설위원·사회61-67 前경향신문 사장	安國正  논설위원·사학63-70 前채널A 부회장	李成俊  논설위원·고고인류64-69 언론중재위원회 자문위원장	
李慶衡  논설위원·사회66-70 내일신문 칼럼니스트	李元馥  논설위원·건축66임 덕성여대 석좌교수	姜天錫  논설위원·사회69-76 조선일보 논설고문	高永才  논설위원·정치69-74 前경향신문 사장	徐玉植  논설위원·동양사학69-7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李元燮  논설위원·외교69-76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嚴基永  논설위원·사회70-74 경기문화재단 대표	
朴時龍  논설위원·농경제71-75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辛京珉  논설위원·사회71-75 국회의원	尹在錫  논설위원·화학교육71-75 CBS 객원해설위원	李東植  논설위원·영어교육72-76 백남준문화재단 이사	鄭世溶  논설위원·철학72-76 내일신문 주필	朴聖姬  논설위원·가정관리73-77 세명대 초빙교수	曹炳喆  논설위원·사회73-77 세계일보 객원논설위원	
許英燮  논설위원·지리교육74-78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	鄭興寶  논설위원·수의학75-81 모교 사회대 초빙교수	金亨珉  논설위원·외교76-80 前SBS 논설위원	李東官  논설위원·정치76-81 서울문화예술대학 총장	金旼日  논설위원·불어교육77-81 조선일보 논설위원	李啓聖  논설위원·정치77-81 한국일보 편집국장 직대	金鎮國  논설위원·정치78-85 중앙일보 대기자	
吳在錫  논설위원·외교78-85 연합뉴스 국제·사업 상무	崔英勳  논설위원·법학78-83 동아일보 논설위원	李容式  논설위원·토목공학79-83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	許承虎  논설위원·경영79-83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金昌均  논설위원·경제80-84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	李先敏  논설위원·국사80-84 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	全榮基  논설위원·정치80-84 중앙일보 논설위원	
姜孝祥  논설위원·사법81-85 조선일보 편집국장	李相起  논설위원·서양사학81-87 아시아N 발행인	金光德  논설위원·정치82-86 한국일보 국장직 선임기자	鄭星姬  논설위원·국사82-86 동아일보 논설위원	鄭在權  논설위원·국문82-87 한겨레신문 전략기획실장	申然琇  논설위원·심리83-89 동아일보 논설위원	姜京希  논설위원·외교84-88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	

權石泉  논설위원·사법85-89 중앙일보 논설위원	鄭然旭  논설위원·공법85-89 동아일보 정치부장	蔡耕玉  논설위원·경영86-90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許文明  논설위원·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오피니언팀장	申藝莉  논설위원·영문87-91 JTBC 국제부장	金伶姬  논설위원·고고미술88-92 한겨레신문 문화부장	金希媛  논설위원·인류89-93 한국일보 사회부 부장대우	
洪智英  논설위원·불문89-93 SBS 문화부 차장	李佳穎  논설위원·신문91-96 중앙일보 사회2부 기자	李炯均·文昌克·金仁圭·裴仁俊논설위원은 본회 회장단 겸임.				申秀貞  운영위원·기학59-63 모교 음대 명예교수	
金一燮  운영위원·경영64-69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胡文赫  운영위원·법학68-72 모교 법대 명예교수	李政宰  운영위원·농공학69-73 모교 교수협의회 회장	李建雨  운영위원·기계공학74-78 모교 공과대학 학장	鄭根埴  운영위원·사회76-80 모교 평의원회 의장	南益鉉  운영위원·경영81-85 모교 기획처장	李在影  운영위원·영문83-87 모교 학생처장	
李吉女운영위원장, 孫一根·李海遠·金哲洙·李世中· 李金器·孔大植·郭永駱·金讚淑·鄭世煜·孫京植·洪性大· 金鎮銅·朴英俊·辛鉉雄·金仁圭·金炯周운영위원은 중복.			관악대상 운영위원			朴武益  인문대·철학62-67 한국갤럽 대표	李祐宰  사회대·경제72-76 시일무역 사장
金胄弼  자연대·동물63-67 동국대 석좌교수	梁光姬  간호대·간호68-72 前직접자간호대 학장	尹友錫  공대·광산63-67 진성티이씨 회장	李賢秀  농생대·농화학60-64 재단법인 서현 이사장	崔永喆  문리대·정치54-58 서경대 총장	劉仁洙  미대·회화66-70 前상명대 예체능대학장	辛永茂  법대·법학63-67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李揆澤  사대·교육61-68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成者鶴  상대·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	崔明珍  생활대·가정교육65-69	李文漢  수의대·수의학66-73 모교 수의대 명예교수	李慶秀  약대·약학66-70 코스맥스 회장	朴健培  치대·치의학70-76 박건배치과 원장	崔鍾庫  대학원·법학66-70 모교 법대 명예교수	
李在述  경대원·대학원82-86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崔鴻圭  교대원·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	裴鍾贊  국대원·대학원99-01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裴吉漢  보대원·보대원75-77 한국갈등조정연구소 대표	南善顯  언대원·대학원77졸 JTBC 상임고문	金基炳  행대원·행대원67졸 롯데관광개발 회장	李完永  환대원·환대원80-83 국회의원	
李景載  AIP·AIP32기 삼진엘앤디 대표	李弼雨  ACAD·ACAD14기 동일그룹 회장	李俊基  ABP·ABP22기 산업은행 심사1부장	文國現  SGS·경대원77졸 한솔섬유 대표	朴英淑  CHCN·CHCN3기 前가정간호사회 서울지회장	朴浩永  HPM·HPM14기 한국위너스약품 대표	鄭喆燮  AMPP·AMPP3기 법무법인 푸른 대표변호사	
李世漢  AIC·AIC11기 GT&T 대표	文正旭  AFB·AFB9기 대원에프앤드씨 대표	朴恩熙  AMPFRI·AMPFRI11기 김家네 체인본부 사장	鄭秀顯  ACPMP·ACPMP3기 현대건설 사장	姜英植  FIP·FIP4기 엘림시스 대표	趙鏞根  GLP·GLP19기 세무법인 석성 회장	文炳昌  ALP·ALP12기 씨케이그룹 회장	
禹晋夏  ANMP·ANMP1기 전대병원 수술간호팀장	朴煥熙  SPARC·SPARC20기 아이넷방송 회장	高永一  AFP·대학원82-84 前우리회계법인 대표	崔巨勳  ASP·법학76-80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金光憲  IFP·IFP5기 캠페이너스 대표	全益寬  ABKI·ABKI1기 K&I그룹 회장	李一鎬  KFL·KFL11기 이스라엘연구소장	
崔順泰  FNP·FNP3기 주영 대표	崔炳五  AWASB·AWASB1기 패션그룹형지 회장	沈文圭  관악무역인회·언어71-75 글로벌아시아 대표	朴君哲  ROTC·원자핵공학71-75 국제원자력대학원대 총장	李順載  연극동문회·철학54-58 나라사랑봉사회 이사장	음대 申秀貞·의대 朴容喆·AMP 金鐘燮·관악언론인 회 裴仁俊회장은 중복. BCP동창회장은 공석.		

“역사기념관 건립과 모교 120년사 편찬에 중점”

특별 인터뷰

신임 徐 廷 和총동창회장



대 담 : 蔡 耕 玉(매일경제 논설위원)논설위원

본회는 지난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에 徐廷和(법학51-55)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徐회장은 20여 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해 누구보다 동창회 업무에 정통한 데다 역사기념관 건립, 서울대 120년사 편찬 등 동창회 주요 사업을 계승·완수할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64년부터 40여 년간 공직 생활

을 거치면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과 광범위한 인맥을 바탕으로 동창회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는 徐회장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동창회와 모교 간의 협력 증진 방안, 동문 사회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33만 동문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등 향후 동창회 운영의 비전과 포부를 들어봤다.

－ 총동창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문들의 기대가 큼니다.

“지난 12년간 회장직을 맡아 총동창회의 중흥을 일구신 전임 林光洙회장님의 업적과 기조를 이어받아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제 마지막 열정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주변 국제정세의 변동, 모교를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압력 등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세계사적 지각변동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기에 우리 서울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서울대인들의 힘을 합쳐 어떻게 국가와 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인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모교와 동창회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면서도 간혹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모교와 동창회는 내외적으로 일체화돼야 합니다. 재학생들이 결국 동창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와 동창회, 그리고 교직원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합니다. 일본 와세다대의 경우 학부형 회원도 있습니다. 자녀가 졸업을 하면 부모도 같이 회원이 되

는 거죠. 이들은 죽을 때까지 모교에 대해 헌신하고, 서로 相扶相助하는 것을 절대적 명제로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모교와 동창회, 재학생의 운명을 일체화시켜 나가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비슷한 맥락으로 동창회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동문들이 보다

료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을 한층 강화해서 수준 높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례를 참조해 우리도 동창회가 동문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방안도 있나요.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재들을 모아 ‘100

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임 林光洙회장님께서 12년간 굉장히 존재감 있게 일을 하시며 많은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기 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전임 회장께서 진행하던 ‘역사기념관 건립’과 ‘모교 120년사 편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역사기념관의 경우 하버드대 등 세계적인 대학에 가만다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대학의 역사, 대학이 국가에 공헌한 내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동문들에게 크나큰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공간입니다. 저 또한 부회장 시절부터 林光洙회장님과 같이 활동하면서 역사기념관의 중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20년사 편찬사업은 현재 李泰鎮편찬위원장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16년 초에는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룬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여 년간의 정·관계 경험 바탕 국내외 서울대 인재 국제교류 증진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복안이 있으신지.

“이 문제는 저 역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체감을 가져야 될 이유를 좀 더 명백하게 해서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세밀하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동창회보가 진행하고 있지요. 앞에서도 언급한 와세다대의 경우, 동창회보를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독

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경우에도 潘基文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100인 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규합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글로벌 역량이 탁월함에도 각자의 영역에서 분산 고립돼 있는 동문들을 100인 위원회와 같은 울타리로 묶어 국제교류 증진 및 후학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활용하는 방

<신임 동창회장에게 바란다>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申 秀 貞(기약59-63)음악대학동창회장

“음악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가장 순수한 예술입니다. 눈부신 경제적 성장 속에서 잊혀진 감성의 선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오늘의 여러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배출된 동문들이 우리나라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좋은 나라 만드는 데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화에 기여할 리더 역할 기대

辛 永 茂(법학63-67)법과대학동창회장

“모교 동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반과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경제발전이 걸맞게, 모교와 우리 동문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모교 발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세요

李 政 宰(농공학69-73)모교 교수협의회장

“지난 일년은 법인 서울대의 발전에 동문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귀중한 한해로서, 서울대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야말로 우리에게 흐르는 단 하나의 전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임 徐廷和 회장님께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선배로서 또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진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교의 교수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정신과 실천 복돋우는 지도자되길

裴 仁 俊(철학70-74)관악언론인회 회장

“총동창회의 자족적 친목만으로는 공허하다. 각계 지도층을 많이 배출한 대학, 그 동창회로서 국가사회 각 부문의 미숙(未熟)과 지체(遲滯)에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대

<신임 동창회장에게 바란다>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한 동창회로...

申 然 琇(심리83-89)관악언론인회 여기자회장

“신임 徐廷和회장님은 朴正熙대통령의 제3공화국부터 盧武鉉대통령 시절까지 대한민국의 수뇌인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활약하셨습니다. 이런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총동창회의 번영을 이끌기를 기대합니다. 또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한 동창회, 모교와 다양한 교감이 이뤄지는 동창회로 더욱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학생회 활동에 관심과 지원 필요

李 慶 桓(물리천문05입)모교 제56대 총학생회장

“어려운 속에서도 서울대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노력하신 선배님들을 본받아 총학생회의 학생 기본권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3만 서울大人이 남북 통일에 앞장서야”

☑ - 모교는 지금 제26대 총장 선출로 분주합니다. 새로 선출될 모교 총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4월 30일 총장추천위원회로부터 3명의 최종 후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후보자가 선출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모교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교 교직원들은 재정 확충, 교육 개혁, 제도 개선 등을 새 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습니다만, 기초 학문 교육과 연구 증진, 우수 학생의 확보와 학생 선발 다양성 확보, 국제화 교육의 강화 등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동창회에서라도 거기에 알맞은 지원과 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학생, 희생정신과 도전정신이 투철한 인재를 배출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빛나는 서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모교가 법인화 이후에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총장이 이사장을 겸하면서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모교 법인화법에서는 이사장을 이사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은 법인화의 과도기임을 감안해 吳然天총장에 한해서만 이사장을 겸하도록 부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총장 임명 후에는 법인화법에 의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게 되므로 이사장과 총장 역할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한 첫 사례인 만큼 학내외에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지배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 출신 후배들을 찾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교수, 공무원 등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심해지면서 동문들 사이에서 ‘서울대 위기론’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딛고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론보다는 국민들이 모교에 요구하는 역할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는 지난 1백년 이상 우리나라 성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수행해 온 교육·연구는 물론 사회 기여, 공헌 활동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해내는 명실상부한 세계 톱10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교가 국가경쟁력을 선도해야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주도할 과학 인재 양성과 세계적인 금융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런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실효성 있는 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였듯이 현재 정부를 비롯한 공직사회, 사회지도층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



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내무행정을 담당하셨던 선배로서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언해 주신다면.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부터 그 사람의 능력과 경륜, 그리고 정신 상태를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 한층 엄정하게 평가한 뒤 임명해야 그들이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의 목표 달성에 헌신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 직책에 따른 직업윤리 교육을 먼저 철저히 한 뒤에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 경남 사천군수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전라남도 부지사, 부산시 부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등 지역 행정가로 30~40대를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교 법대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의 삶을 들려주세요.

“사법고시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던 즈음 사무관 공개 시험이 공고됐습니다. 경험 삼아 시험을 쳤는데 수석합격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즉시 경남도청으로 발령이

나서 감사과장과 사회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천군수와 김해군수를 지낸 후 내무부 본부로 오게 됐지요. 그 뒤 알다시피 총무과장, 행정과장, 부산시 부시장,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충남도지사 등을 거쳐 내무부 차관에 올랐으며, 차관으로 승진한 지 5년 만에 장관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감을 갖고 내무부를 통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내무부 장관을 지내

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통일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특히 통일외교통상위원장으로 남북 통일문제와 미·중·러 간의 통일외교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주도한 점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천착하셨고 누구보다 통일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신데, 통일과 관련하여 서울대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33만 서울대인이 남북 통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인 모두 통일에 대한 자각을 3·1운동과 같은 민족사적인 소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가 서울대를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 인재를 배출해 낸 것입니다. 하나 둘이 모여 수십만 명의 인재가 쌓였으면 이제는 동창회의 목표가 국가의 목표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서울대를 만들어 키운 이유가 무엇이겠

동창회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체계 필요

‘相扶相助’·‘勿怠爲善’ 정신 강조

신 후 정계에 진출, 국회 의원을 5선까지 역임하셨는데, 당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내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토통일 고문을 맡았습니다. 통일부에서 관계 문서가 준비한 도서관의 한 방을 제공해 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게 됐고, 이후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장관급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옮겼지요.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전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조국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급 인사

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통일지도조직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모시는 데 주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며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신 대통령께 보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들어와 12~16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는데, 무엇보다도 당 평

습니까. 서울대인의 최고 책임 명제는 조국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이 번쩍드는 얘기인데요, 33만 서울대인이 정말 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움직이면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지금도 굉장히 풍채가 좋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유도가 2단, 태권도가 4단입니다. 굉장히 운동을 좋아해서 옛날에도 대학 간에 가끔 싸움이 붙으면 친구들이 저를 불렀지요. 특별한 건강관리법은 없고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강조하는 철학이 라든지, 인생관이 있다면.

“저희 집안의 가훈이 ‘勿怠爲善’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항상 착한 일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金南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徐회장은

1955년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방대 행정대학원 수료, 법학박사(한양대), 명예정치학박사(숙명여대)를 취득했다.

1964년 경상남도 사천·김해군수, 경기도·전라남도 부지사, 부산시 부시장, 충청남도 도지사,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차관, 내무부 장관, 평통 장관급 사무총장 등을 순차적으로 거치며 국가 행

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12~16대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내무위원장,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 정치 발전에도 힘쓰면서 누구보다 앞장서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요직을 거치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1972년)을 비롯해 황조근정훈장(1978년), 청조근정훈장(1982년), 세네갈공화국 훈장(1979년), 호국영웅기장 등을 받았다.

동창회장 소임을 마치면서

전임 林光洙회장 퇴임인사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제24대 총동창회장의 임기를 대과 없이 마쳤습니다. 지난 2002년 제19대 총동창회장직에 취임한 후 12년 동안 총동창회장직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진심으로 격려해주신 동문과 모교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12년의 세월은 모교와 총동창회 모두 일대 전환기적 시기였습니다.

모교의 경우,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직후 ‘서울대 폐지론’의 격랑에 휘말렸으며 국립대학법안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야기된 학내 외의 百家爭鳴 또한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모교의 개교 연도가 통합 국립서울대학교 출범 연도인 1946년으로 돼 모교의 역사가 일정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모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실제보다 현격하게 저하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교와 동창회에 관한 일이라면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대 폐지론 잠재우기와 법안화의 소조로운 이행, 그리고 모교역사 바로세우기에 전력했습니다. 서울대 폐지 음모의 경우, 폐지론의 부당성을 지적한 주요 언론의 기사들을 모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국회 및 각 정당, 교육관련 단체 등에 발송하는 한편, 동창회보에 게재된 관련 칼럼 및 선진국 대학 교육 현황을 정리한 책자 ‘國際競爭力과 教育의 秀越性’ 7천부를 발행해 요로에 발송함으로써 폐지론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안화 추진에 있어서도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법안화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악언론인회’ 동문 여러분의 노고가 컸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역사 바로세우기는 모교 李長茂前임 총장님, 평의원회 朴彬次前임 의장님, 李泰鎭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모교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교의 개학 연도를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가 문을 연 1895년으로 소급함으로써 내년으로 개학 120주년을 맞게 되는 유구한 역사를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단과대학 위주로 결집되는 동창회의 특성으로 인해 정작 총동창회는 활성화되지 못해 ‘모래알 서울대인’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풍토를 ‘콘크리트 서울대인’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저는 총동창회 임원진과 힘을 모아 동문들께 일일이 연락을 취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2백명 내외에 불과했던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참석자가 수년 전부터 1천3백여 명의 선후배가 모이는 동문 화합의 장으로 활성화됐습니다. 매년 가을 열리는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에도 6천여 명의 동문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 재일 동창회, 그리고 재중 동창회 등을 부지런히 방문해 해외 동창회를 활성화하는데도 미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총동창회장 취임 시 약속한 동창회관의 재건립 또한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지은 지 20년이 지나 낡고 초라한 동창회관의 재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7천여 동문들로부터 4백10여 억원의 소중한 기금을 모아 지상 19층 규모에 시가 1천억원의 세계 최대 장학빌딩을 준공할 수 있었고 2백여 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동창회로 성장시킴으로써 장학빌딩은 동문들의 요람인 동시에 모교 지원을 위한 저수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매년 여기서 발생하는 50여 억원의 재원은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모교의 교육 수월성 제고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더하여 2012년 모교와 70여 명의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모교에 세계 초일류 학과와 학부를 만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모교의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지원함으로써 유명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9.23. 인터넷 강의 시작)

한편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대 120년사’ 편찬은 작년 10월 李泰鎭 명예교수팀이 작업에 착수해 2016년 3월까지 편찬을 완료하고 출간에 들어갈 예정이며, 역사기념관은 모교 캠퍼스 내에 향후 2년 안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이 과업은 신임 徐廷和 회장께서 충실히 수행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으로 서울대인 모두가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선다면 서울대는 머지않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임 徐廷和 회장에게도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차년도 ‘교수 강의 동영상’ 개발 완료

朴鍾寓교수 강의 edX서 1만3천여명 수강

본회 장학연구지원사업

본회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CTL)에서 2013년 2학기에 진행한 2차년도 교수 강의 동영상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모교 CTL이 주관한 이날 발표회에는 본회 徐廷和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辛鉉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李基俊 前총장과 吳然天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총괄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 劉永濟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吳然天총장은 환영사에서 “교수 강의의 개방성과 유연성이라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총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를 통해 “李基俊 前총장님, 吳然天총장님과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말씀을 나눠 보니 중국보다도 뒤떨어졌고, 집중적으로 재원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충실히,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CTL 金善永연구교수가 ‘MOOCs(개방형 온라인강좌)의 최근 동향과 고등교육의 전략적 대응’을 발표했으며, 사회대 경제학부 柳根寬교수, 공대 건축학과 白鎭부교수, 인문대 종교학과 裴哲炫부교수가 다양한 강의 콘텐츠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모교는 지난 1차년도 사업에서 글로벌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 기관인 edX 내의 ‘SNUx’를 통해 물리천문학부 崔善浩교수의 ‘물리의 기본1-역학과 파동’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부 趙東濬교수의 ‘한반도와 국제정치’, 기계항공공학부 朴鍾寓교수의 ‘로봇역학 계획 및 제어’ 등 세 개의 강좌를 공개했다.

이중 朴鍾寓교수의 강의는 1만3천여 명이 수강신청하며 전 세계 학습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崔善浩교수와 趙東濬교수의 강의 또한 각각 9천여 명과 3천3백여 명의 수강신청을 기록했다.

“건강검진시 10% 할인 받으세요”

분당 모교 병원 업무협약

본회(회장 徐廷和)와 분당 모교 병원(원장 李哲熙)은 지난 4월 18일 경기도 분당 모교 병원에서 ‘서울대총동창회 회원 건강관리 증진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본회 회원 및 가족이 분당 모교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오는 10월 18일까지는 협약기념으로 회원에 한해서 1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진료는 제외)

이로써 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인 모교 병원(연건캠퍼스), 모교 병원 강남센터, 국립암센터를 포함해 4곳으로 늘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회 제휴신용카드 제시 또는 본회



본회 孔大植부회장·黃辰赫건강증진센터장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건강검진에는 프리미엄 패키지(남3백36만원, 여3백66만원), 중·장년 대상 퍼플 패키지(1백20만원, 1백41만원), 20~30대 대상 그린 패키지(75만원, 78만원), 청소년 대상 블루 패키지(40만원, 42만원) 등이 있다. (문의: 1588-3369) (秀)

“평생회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본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동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5월 15일부터 평생회비에 한해서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합니다.

현재 일반회원의 평생회비는 30만원, 이사회원의 평생회비는 70만원입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회원님들은 당해 연도 안에 분할 납부해 주시면 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납부방법

1. 자동이체 : 거래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
2. 지로납부 : 분할 납부 금액을 신청하면 동창회에서 지로 발송
3. 신용카드 :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금액을 정해 결제

대구 청라언덕 등 근대골목 투어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李堉雨)는 지난 4월 5일 대구시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동문 및 가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춘계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여행 코스인 대구 근대골목 투어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동산의료원 내 청라언덕에 모인 참석자들은 3·1운동길, 계산성당, 뽕나무 골목, 시인 李相和선생 고택과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徐相敦선생 고택을 거쳐 제일교회,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진골목 등을 돌아보며 대구 시내 곳곳에 남은 근대사의 흔적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3·1운동길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을 체험했다.

또 영남대 鄭鎭洙(건축69-73)교수가 부친이 설립한 대구 최초의 근대식 양옥 건물인 정소아과 의원의 안내를 받았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미도다방에서 동문들에게 한방약차를 대접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李堉雨회장이 점단 향균 물통을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골프대회서 우의 다져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度運)는 지난 4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 보고르리아골프장에서 회원 및 가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를 마친 후 56학번부터 00학번에 이르는 선후배들이 만찬을 즐기며 정을 나눴으며, 李和洙(경제83-90)동문의 사회로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다.

裴相璟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전통을 이어가는 모범적인 동창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裴度運회장은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더욱 활성화하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자”며 발전기금

으로 1억 루피아(한화 9백만원 상당)를 내놓았다.

이어 송년모임 준비위원인 申敦澈(산업미술83-89)동문이 금년 송년모임을 위해서 각 단과대학의 협조를 구했다. 회원과 가족들의 음악잔치를 겸한 발표회를 갖기로 했으며 사전 명단 제출과 함께 행사 2개월 전부터는 연습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장단에서는 총동창회 임원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골프시합은 학번별로 나눈 4개조의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D팀(56, 68, 74, 80, 87, 89, 98, 99학번), 준우승 C팀(64, 69, 76, 82, 94, 00학번) ▲개인전 : 메달리스트 崔亨洵(임학69-73)동문, 통기스트 李和洙동문, 니어리스트 白漢美(수학교육83-87)동문

고전연구 모임 재개 춘천지부동창회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4월 3일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영풍HS 전시장 회의실에서 고전연구 모임을 가졌다.

춘천지부 산하 소모임인 고전연구 모임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월 세미나를 통해 ‘논어’를 마쳤다. 이후 4개월 간 휴식기를 가지며 각자 읽은 ‘맹자’를 주제로 이날 세미나를 재개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正根(의학70-76)회장, 李柱弘(외교88-93)사무국장, 金大熙(사법88-93)·洪允基(중문88-94)동문과 강원대 법학과 崔熙洙교수, 지속적으로 고전연구 모임을 돕고 있는 한학자 김정기 씨가 참석했다.

李柱弘사무국장은 “만학으로 느끼는 동양 고전의 맛은 대학에 다닐 때도 느끼지 못했던 희열”이라며 “앞으로 노자, 장자 및 동서양 고전을 가리지 않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秀)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13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 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4월 1~30일 10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3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3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13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SLIDE RULE(일제) ▲梁承一(조선공학65-69)동문:신입생 지도서(1965년) 외 9점, 사진 5점 〈사진〉 ▲鄭東俊(행대원65-67)동문:회원 명부류, 정책지식포럼 자료집 등 ▲李漢穆(영문72-76)동문:영문과 교재류, 1970년대 교지류 등 ▲石元慶(화학75-79)동문:문리대버클 ▲許仁男(보대원80-86)동문:합격 증명서, 장학금 면제 증서 ▲趙文英 前학생처 장학과 직업보도담당자:‘유학생’ 학보(1969년), 교직원산우회 ‘관약산’ 창간호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2319-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신입회원 환영 등 ‘동창의 날’ 풍성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지난 4월 22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정기총회 겸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倫京교문, 梁光姬회장, 모교 간호대학 宋美順전임학장, 朴賢愛학장을 비롯해 신입회원 등 1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바자회, 신입회원 환영식, 축하

공연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梁光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식구가 생긴다는 것은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기

에 신입회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서 “이들을 비롯해 4천여 동문들이 뭉친다면 간호계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賢愛학장은 “아직 진행 중인 일이지만 간호인력 개편안을 두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가



梁光姬회장 등 임원들이 신입회원들을 환영하고 있다

큰 힘이 됐고, 지난 연말 35인승 버스 구입 기금 모금에도 많은 동문들이 협조해 줘 4개월여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梁회장은 최우수로 졸업한 유하

영 신입회원에게 동창회장상과 부상으로 순금(3.75g) 펜던트를 전달했으며, 임원들은 신입회원들에게 장미꽃과 화장품을 선물하며 동문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했다. 올해 신입회원은 80명이며 이 가

운데 59명이 4월 현재 모교 병원, 분당 모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동창회는 기금 등을 출연한 金惠聖(간호67-71)·李仙玉(간호69-73)·金英淑(간호75-79)·申貞姬(간호75-79)동문에게 감사장과 15명의 재학생에게 1천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동창회 기금으로 2억2천만원과 장학 및 연구기금으로 8억9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올해 장학사업, 모교 지원, 친목사업 등으로 8천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총회에 2백여 동문 참석 성황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4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仁子·鄭興淑·禹敬子전임 회장, 모교 생활과학대학 牟壽美·李順媛·李基春 명예교수, 余禎星학장을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과거 총회에는 68학번 이전 가정교육과 출신 동문들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총회에는 생활대 출신 동문들이 70% 이상을 차지해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崔明珍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골프 애호가들은 ‘골프약속은 본인 상 외에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동창회 총회 역시 동문들에게 그런 모임이 돼야 한다”며 “우리 모든 동문 마음속에 동창회 모임이 특별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회 후 장학금 수여식에서 목련회 장학금, 朱貞一·李義淑·禹敬子 장학금, 흙커밍 SNU희망장학금 이름으로 재학생 5명에게 각각 2백만원씩 1천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동문들이 꾸리고 있는 특별공연 순서에 朴貞媛(식품영양71-75)동문 등 71·73학번 동문들로 구성된 국악팀이 출연해 흥겨운 공연을 선보여 동문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검찰 동문 환영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4월 15일 대전시 둔산동에 위치한 한정식당 예술마당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동문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부임한 대전지방검찰청 朴珉豹(사법82-86)

검사장, 朴均澤(사법85-90)차장검사, 金廣洙(공법88-92)·尹源祥(사법92-97)부장검사, 權敬日(외교86-91)부부장검사 등 검찰 동문이 참석해 동문들의 축하를 받았다.

吳應準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고장 한발 땅에 부임한 법조 동문 여러분을 환영하며, 재임 기간 중 이 지역 정의사회 구현에 모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생명-다시 보기, 유화, 90×90cm, 2014년

徐孝淑作

〈작가약력〉

- ▲1985년 모교 회화와 졸업
- ▲1988년 모교 대학원 졸업
- ▲2001년 PYRAMID ATLANTIC workshops in Maryland
- ▲제11회 중앙 미술대전 특선 수상
- ▲윤갤러리(1989년), 가산화랑(2011년), 지구촌갤러리(2011년), 갤러리 터치아트 초대전(2012년), 갤러리H 초대전(2013년), 세종갤러리 초대전(2013년), 스페이스 이노 초대전(2014년) 등 개인전 13회
- ▲Mini 아트페어 2012,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 오픈 아트페어, 회화정신-중한미술교류전, 동아시아 작가교류전 등 아트페어 및 해외전 다수
- ▲단체전 및 기획전 2백여 회
- ▲현재 한국미협·회화정신전·훈올회·아트미션 회원

‘음악이 있는 봄’ 모임 안동지부동창회

안동지부동창회(회장 李薺九)는 지난 4월 14일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프라하에서 봄맞이 모임을 가졌다.

‘와인과 음악이 있는 조용한 식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李薺九회장이 준비한 와인과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초대가수 우대하 씨가 포크송을 부른 데 이어 농생대 그룹사운드 ‘샌드페블즈’ 출신의 안동과학대 張永鎬교수가 열창하고, 안동대 鄭運仙교수와 鄭哲義총무가 샌드페블즈의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곡 ‘나 어떡해’를 함께 부르며 노래 실력을 뽐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黃在文전임 회장과 金世忠전임 총무, 부부한의원 金奉顯원장이 기념품을 제공했다.



테니스로 우의 다져 의대동창회

의과학대학동창회(회장 朴容昰)는 지난 4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테니스코트에서 제36회 회원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강릉에서 온 尹東憲(의학61-67)동문, 완도에서 온 강상호(의학95-02)동문을 비롯해 38명의 동문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모교 金鎭永명예교수가 심판위원장을 맡아 각 부별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를 위해 姜信浩명예회장이 음료, 테이블 및 파라솔, 차

容昰회장이 기념타을, 모교 병원에서 머그컵 세트를 협찬했다.

경기결과와 다음은 같다.

▲실버부: 우승 柳世英(의학56-62)·韋正一(의학63-69)동문, 2위 金鎭永(의학50-56)·金聖德(의학65-71)동문 ▲첼피인부: 우승 金滿植(의학74-80)·鄭載溶(의학76-82)동문, 2위 林弘喆(의학69-75)·金容載(의학74-80)동문 ▲여성부: 우승 金美那(의학83-89)동문·현지현 재학생, 2위 박예송·김수진 재학생 ▲일반부: 우승 金光顯(의학66-72)·吳翼煥(의학84졸)동문, 2위 金鍾和(의학63-69)·강상호 동문 (南)

새 회장에 尹炳恩동문 선출

商松會

상대 태권도동아리 출신 모임인 商松會(회장 柳三泰)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주산업 尹炳恩(경영72-76)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는 재학생 20여 명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지난 4월 8일

재학생들을 회사로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진 신임 尹炳恩회장은 “상송회는 동아리 승급·승단 심사 행사에도 동문들이 찾아가는 등 재학생 후배들과 함께 하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학생과 동문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알콜산업 池昌壽(상학55-59)회장, 洪在馨(상학56-60)前국회 부의장, 코오롱그룹 羅公默(상학56-61)고문, 愼平幸(경



尹炳恩회장이 재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제57-61)前교보증권 회장, 삼일회계법인 徐泰植(경제58-63) 명예회장, 세계경제연구원 司空壹(상학58-64)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陳稔(경제59-63)이사장, 경기일보 林昌烈(경영62-66)회장, 李學甲(무역62-

69)前대림요업 사장, 諸葛政雄(상학65-72)前대림대 총장, 모교 경영학과 趙東成(경영67-71) 명예교수 등이 상송회 회원이다. 2012년 ‘공부벌레들의 이단열차기’, ‘상송회 55년’ 등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金千植동문 특강
정치·외교학부동창회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金允壽)는 지난 4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金千植(정치76-83)前통일부 차관을 초빙해 ‘현장에서 본 통일문제’를 제목으로 정례조찬 모임을 가졌다.

金千植동문은 지난 2000년 故金大中 前대통령과 故金正一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정상, 고위급 남북회담에 1백20여 차례 실무진으로 참여한 바 있다.

金동문은 “朴槿惠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재앙론’을 극복하는 데 매우 좋은 것”이라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통일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방법은 통일재원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고 실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며, 북한 주민의 마음이 대한민국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金允壽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南)



사대 COE합창단의 축하공연

총회서 金榮愛회장 추대

사대 여성동문회

사범대학 여성동문회(회장 任公姬)는 지난 4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榮愛(생물교육64-68)동문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金昌玉(사회교육59-63)·崔昌淑(가정교

육68-72)동문을 선임했다.

총회 후 任公姬회장은 동문회 소식지 제작을 위해 애쓰고 있는 洪性淑(가정교육50-54)·金順五(가정교육55-59)동문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COE합창단의 공연과 柳吉子(교육심리61-65)동문의 ‘명의-음식, 운동, 수면’에 관한 강연, 경품추첨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李惠子회장 선임

치대 여성동문회

치과대학 여성동문회(회장 崔明鎭)는 지난 4월 9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혜자치과의원 李惠子(치의학77-83)원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감사에는 金殷淑(치의학73-79)·許允姬(치의학74-80)동문이 추대됐다.

신임 李惠子회장은 “동문회 선



후배 간에 결연식을 맺어 서로를 이끌어주는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동문회 화합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적개정을 통해 ‘치과대학 여성동문회’를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만평

李元馥



李承輝회장 뽑아

금속동창회

금속동창회(회장 權五俊)는 지난 4월 4일 서울 서초동 중식당 타워차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세아베스틸 李承輝(금속공

학69-73)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金學敏(금속공학68-72)전문위원에게 ‘자랑스러운 금속동문상’을 시상했으며, 모교 재료공학부 최우수 졸업생인 정동혁 군에게 금속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헌분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孔大植·張龍鐸·朴亨根·任廷基·李奉振등문

3회 학술상 朴亨根교수 수상

신풍호월학술회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徐廷和)가 후원하고 신풍호월학술회(이사장 張龍鐸)가 주관한 신풍호월학술상 약학부문 시상식이 지난 4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 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3회 신풍호월학술상 약학부문 수상자로 모교 제약학과 朴亨根(제약81-85)교수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朴교수는 지난 16년간 광학활성

상전이 촉매 개발 및 광학활성 유기화합물의 입체선택적합성에 관해 연구해 왔다. 이는 원료 및 완제의약품을 경제적으로 합성·생산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 미국화학회지 등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 본회 孔大植부회장, 모교 任廷基기획부총장, 약대 李奉振학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朴교수의 수상을 축하했다. 張龍鐸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약대의 연구 결과는 오랜

기간 축적된 제약산업의 생산 및 신약개발기술과 융합돼야 한다”며 “정부·학회·연구기관·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풍호월학술상 약학부문은 약학과와 제약업계 간 신약연구개발 기반조성과 산학연 협력에 기여를 목적으로 張龍鐸(약학55-61)이사가 본회에 2억원의 특기장학금을 출연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李景載회장 선임 AIP동창회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姜普英)는 지난 4월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金榮洙·朴煥奭·姜錫大·鄭喜鎔전임 회장, 姜普英회장, 모교 공과대학 李建雨학장 등 2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삼진앤디 李景載(32기)대표를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 후 동아이지에듀 李承宰(미학90-96)총괄이사가 ‘영화로 배우는 Creative Thinking’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봄나들이’ 행사 즐겨 토목공학과동창회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李淳柄)는 지난 4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2014년 ‘토목인의 상’ 시상식에서 대영엔지니어링 李桓範(토목공학56-62)회장과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金秉國(토목공학74-78)단장이 상패를 받았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동창회 및 成百鎰장학회 이름으로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본 관서지방서 학술기행

AFP동창회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高永一)는 지난 4월 3~6일 일본 관서지방으로 ‘메이지 시대’를 주제로 학술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학술기행에는 高永一회장, 모교 인문대학 裴永洙학장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나라-오사카-교토-시가현-나고야의 역사유적지를 돌며 일본 근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CEO들에게 인문학 열풍을 일으킨 AFP동창회는 상·하반기에 총 8회의 심화학습과정을 개설해 수

료 후에도 인문학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高永一회장은 “동창회뿐 아니라 기수별로도 월요일은 공부하는 날로 정해놓고 많은 동문들이 ‘열공’ 중에 있다”며 “우리 과정을 비롯해 인문학을 탐구하는 과정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한 차원 높은 정신문화를 지닌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 동창회 임원으로 裴永洙(5기)감사, 崔致鉉(6기)총간사, 朴炯明(6기)기획간사, 張明珍(6기)학술간사, 黃仁竣(7기)재무간사 등이 수고하기로 했다.

자랑스런 교수상 시상 AMP동창회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鐘燮)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14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孫京植명예회장, 李秉宰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경영대학 金炳道학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교 경영학과 安重鎬(외교71-75)교수가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수상했으며, 모교 경영대학에 5억원을 기부한 金鐘燮회장에게 金炳道학장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金회장은 해외출장으로 李秉宰수석부회장이 대리 수상했다. 安교수는 시상식 후 ‘산업환경 및 트렌드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진 총회에서 金鐘燮회장의 연임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자선 송년음악회, AMP대상 시상, 조찬강연회 등의 사업에 3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했다. (邊)



安重鎬교수, 李秉宰수석부회장

• 뭐라고?

어떤 여자가 남자 친구랑 있었는데, 너무너무 방귀가 나올 것 같아서 “사랑해!” 큰소리로 외치며 방귀를 끼었는데...

남친이 하는 말이 “뭐라고? 방귀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28일밖에 없으니까.” ㅎㅎ

• 5분만...

몸이 게을러 밥을 하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난 남편이 어느 날 “당신이 밥을 해주지 않으면 식당 가서 사먹고 오겠소!!”라고 외쳤다. 그러자 아내가 당황해서 “5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대답했다. “5분만 기다리면 밤이 다 되요?” “아니요. 5분이면 옷을 다 갈아 입을 수 있으니 같이 가서 사 먹읍시다.”

(독자제보 환영)

접근 가능한 공학 전문 자료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국내외 검색 사이트들과 전문 자료 이용 사이트들의 티워드 검색의 한계를 느낍니다.

전혀 새로운 공학적인 접근을 위한 레퍼런스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신규 혹은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크리티컬한 각종 규제 및 규격, 특허들이 궁금합니다.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시연 및 Trial 신청으로 바로 경험해 보세요.

IHS IEEE SAE INTERNATIONAL Authorized Dealer in Korea 키티스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代)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MEN & WOMEN

197 T-Shirts (티셔츠)
COLORS

~~₩113,000~~~

₩49,000~

158 PANTS (팬츠)
COLORS

~~₩156,000~~~

₩69,000~



4LMTS231
~~₩142,000~~
₩99,400

4LMPT207
~~₩170,000~~
₩79,000

(주)VL&CO · (02) 548-6801,6824 www.louiscastel.com



LOUIS CASTEL
PARIS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주인도 안심 세입자도 안심

전세금에 안전벨트를 하세요!

낮은금리로 대출 받고, 전세자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



[전세금안심대출] 알아보기

목돈마련 부담과 전세금 반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전세금안심대출]

- 신청인** 전세금의 5%이상을 납입한 19세 이상의 임차인
 - 대출요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 계약기간 2년 이상의 전세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한 전세계약, 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액이 집값의 70~90% 이내
 - 대출한도** 전세금의 80% 이내(또는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 중 작은금액)
 - 보증료율** 전세보증금의 0.197% + 대출금의 0.05%
 -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
- ※동 상품을 이용하여도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 대상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금리** 최저 연 3.49% ~ (2013.12.19 현재,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 6개월 / 금리우대 최대 연 1.0% 적용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시기** 전입신고(입주)후 3개월 이내
- 이용방법** 전국 우리은행(1599-5000) 영업점을 통해 문의 및 접수
- 보증기관** 대한주택보증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사범대학동창회 李揆澤회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李揆澤(교육61-68)이사장이 지난 3월 사범대학동창회 회장에 선출됐다. 사대 동문들은 추진력 강한 李동문이 동창회 숙원 사업인 회관 마련에 방점을 찍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李회장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 동문들 기대가 큼니다.

“지난 6년간 동창회를 몰라보게 발전시킨 卞柱仙회장 다음에 임무를 맡아 사실 부담이 큼니다. 전임 회장을 비롯해 鄭元植·姜信主·張忠植·李相周선배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그거 믿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임 회장께

싸우셨죠.

“국회 교육위원장을 할 때 ‘서울대 폐교론’이 나왔어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최고 두뇌집단을 없앤다는 게 말이 돼요? 앞장서 반대했죠. 모교에 미안한 점은 국정감사를 받도록 한 일입니다. 당시 李基俊총장이 처음 국정감사를 받았죠. 정부 예산을 받아 운영되기 때

“동창회관 마련에 온 힘 쏟겠다”

서 마련한 터전 위에 멋진 집을 짓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 회관 건립 사업은.

“과거 광화문에 있던 동창회관이 재개발로 헐리면서 회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건립과 매입을 두고 의견이 오가다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당시 매각대금과 동문들이 보내준 기금 등을 포함해 23억5천여 만원이 확보된 상태예요. 30~40억원은 돼야 은행대출 포함해 50억원 규모의 회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회장단의 판단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계속 모금 활동을 펼쳐 나가야죠. 3만여 사대 동문들이 뭉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 ‘서울대 폐교론’이 나올 때 앞장서

문에 국정감사를 받는 게 옳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당시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잘했다는 의견이 많았죠.”

—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였는지.

“F학점도 몇 개 있고, 모범생과는 거리가 멀었죠. 사대에 예쁜 여학생들이 많았는데, 주변 학교 남학생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웃음)”

경기도 여주 출신인 李회장은 모교 졸업 후 이전 마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후 중앙일보 사업부장, 삼성라이온즈 초대 사무국장 등을 거쳐 민주화추진협의회 대외협력국장으로 정계에 입문해 14대부터 4선 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회원 67만명, 자산 22조) 이사장에 선임됐다. 매일 등산과 1시간 가량의 체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국제대학원동창회 裴鍾贊회장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국제대학원동창회는 올해 초 리서치앤리서치 裴鍾贊(대학원99-01)본부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2011년 발족된 국제대학원동창회는 현재 기틀을 잡아가는 단계로, 회원들이 20~40대로 젊고 외국인 동문이 2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이 특징이다. 지난 4월 9일 서울 잠원동 한 음식점에서 裴회장을 만나

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한 후 어느 정도 조직이 탄탄해지면 장학금 조성, 사회 봉사 활동 등을 생각하고 있고요. 동문회 성격상 다문화 교류라든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학원동창회 운영이 쉽지 않은데.

“대학동창회는 학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학원의 경우 자기목적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입학해 인적 교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 듯 싶어요. 대학원동창회가 단순 인적 교류에 머무르기보다 포럼 등을 통한 생산적 모임으로 자리잡는다면 충분히 잘 될 수 있

“조직 체계화·포럼 발족 계획”

계획을 들어봤다.

— 먼저 동창회 소개를.

“1997년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국제통상, 지역연구, 한국학, 국제협력 과정 졸업생을 비롯해 국제대학원 출신 동문 1천2백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대 정재원 교수가 초대 회장, 모교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 禹昌彬연구원이 제2대 회장을 맡았죠. 아직은 정기총회 정도의 모임만 갖고 있습니다.”

—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선 기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정관을 만들고, 인명록,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일 등이죠. 동시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앞 글자를 따 ‘서국포럼(가칭)’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친목을 넘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인데 동문 개개인

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도 참여도가 떨어지면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습니다.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하죠.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만큼 동창회 모임을 통해 서로 간 자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裴회장은 방송을 비롯해 여러 언론매체에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90학번으로 모교 대학원서 국제협력을 전공했으며 고려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상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거쳐 10년 전부터 여론조사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南)

대표이사 김혜정 [82人 독어독문]



당신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결혼해 듀오

맨 듀오

한국매도결혼정보회사
15개
-8333

1995 19년 역사와 규모, 매출 1위
(2013년 매출액 기준)
성혼커플수 28,730명
(2014년 4월 14일 기준)

*듀오는 업계 유일의 '의결법 대상법인'(총 자산 100억 이상 기업만 해당)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포함 모든 재정상황을 공개하는 투명하고 정확한 기업입니다.
*성혼커플수는 듀오에 가입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 2. 14~2014. 4. 14)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당신에게 사랑이 가장 소중한듯이 말리부에겐 그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Engineering for Your Loved Ones
2014 말리부 디젤 출시!



FIND **NEW** ROADS™

2014 MALIBU | NEW 말리부 디젤 출시 |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국내 최고 65% 초고강력과 고장력 강판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위한 R-EPS 시스템

CHEVROLET 

한국지엠 고객센터 080-3000-5000 www.chevrolet.co.kr [쉐보레 공식딜러] 에스에스오토 02-513-0001 스피드모터스 042-520-4000 아주모터스 02-2023-1900 대한모터스 051-712-3800 삼화모터스 02-753-9900

● 2.0 가솔린 자동 6단 (1,998cc 1,530kg)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9.8km/ℓ, 고속도로연비 14.9km/ℓ) 3등급 CO2배출량: 151g/km ● 2.0 디젤 자동 6단 (1,998cc 1,645kg) 복합연비 13.3km/ℓ (도심연비 11.9km/ℓ, 고속도로연비 15.7km/ℓ) 3등급 CO2배출량: 149g/km ● 2.0 LPG 자동 6단 (1,998cc 1,585kg)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0km/ℓ, 고속도로연비 10.7km/ℓ) 5등급 CO2배출량: 163g/km ● 2.4 가솔린 자동 6단 (2,384cc 1,590kg)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2km/ℓ, 고속도로연비 13.6km/ℓ) 4등급 CO2배출량: 164g/km ※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동안 받기만 해온 도움을 돌려줄 때입니다

후진국의 농업·농촌개발에
함께 합시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



Good Farmers
굿파머스

우간다지부
서헌재단우간다(SFU)

우리나라 무인항공기 기술수준

특별기고

세월호 여객선 사고의 두 얼굴

최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연이어 추락한 채로 발견됐다. 이 소형 무인기는 비교적 장거리를 비행해 주요 지역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이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런 형태의 무인기가 테러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사용될 경우에 국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나라 군의 무인기 수준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시하자 정부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운용 중인 무인기 ‘송골매’와 내년 12월 실전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첨단 소형 무인항공기 ‘리모아이-006’을 공개했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 수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의 개발을 시작해, 2000년대에 들어 군에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송골매’는 5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며, 주야간 고해상도 영상정보를 획득해 군단지휘소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추락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인기들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양으로 예측해 볼 때 대학 연구실에서 제작해 운용하는 정도의 연구용 또는 실험용 수준의 무인기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 산업체에서 개발해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송골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밖에 우리 군은 이스라엘제 정찰용 무인기 ‘서처’와 무인자폭기 ‘하피’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서 수직이착륙과 고속비행이 가능한 틸트로터형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장시간 체류하며 정찰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 7위권 무인기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 관련 미래기술 개발에 대한 능력을 살펴보면, 항공우주공학도가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 연구실에서는 자율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설계 개발해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융합해 2030년대에는 무인전투기의 개발 및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북한에서 소형 무인기를 이용해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번에 추락한 형

태의 무인기는 크기가 매우 작고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재의 북한 무인기 기술수준이 상당히 낙후돼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연구개발을 거쳐서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비록 현재는 위협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언젠가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소형 무인기를 통한 도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사고가 발생했다. 매일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만, 진도 앞바다에서의 여객선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을 자랑하던 조선해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치 나 자신에게도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웬지 무겁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과거 대형 여객선의 사고들은 주로 몇 가지의 전형적인 원인들에 기인해 왔다. 압초등과 같은 외부물체에 의한 선체 손상, 심한 파랑으로 인한 선박의 운항 안전성 상실, 내부 화재나 폭발 등이 주로 대형 여객선 사고의 원인들이 돼 왔다. 만일, 금번 사고가 급격한 진행방향을 원인에 의한 것이 확실하다면 것처럼 조타가 된 이유를 규명해야 하고, 이는 앞으로 선박운항 안전성 분야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선체를 인양한 후 주요 장비들의 시간별 기록을 확인해 본 후

가능할 것이다. 행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기계의 결함이나 항해선원들의 인적인 잘못이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처음 보도됐을 때 좌초 등과 같은 사고원인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던 소위 전문가라 자칭하던 사람들 가운데,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들과 유사한 예측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처럼 이런 사고의 원인에 대해 예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선박사고는 사고원인의 판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길게는 수년간 전문적인 분석을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보면 금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한국인들의 전형적 속성

인 ‘빨리 빨리’로 진행될 것 같다. 물론 법적인 윤리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 특히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돼 국민들의 가슴에 깊고 큰 상처를 남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위해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을 분석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최대한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힐 수 있고 앞으로 동일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3백~4백m 길이의 선박들을 똑딱똑딱 지어내는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지만, 1백46m의 여객선이 연안에서 어처구니없이 전복하고, 이것도 모자라 정부가 총력을 다한 수심 37m 깊이에 구조작업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안전 시스템과 재해대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한 어린 영혼들을 눈물로 떠나보내는 것도 한국이다. 배 이야기만 나오면 어깨가 펴지던 자랑스러움이 이제는 웬지 부끄러움이 앞서고,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한 조각의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진다.

금번 사고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가 깊은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개인들의 인식,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도덕과 안전 시스템이 새로운 전기를 맞아야 한다. 만일 금번 기해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金 庚 垣

(항공공학79-83)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金 龍 煥

(조선공학83-87)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특별한 VVIP를 위한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의 8개 명문대 총동창회, 22개 전문직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곳, 바로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POSCO FAMILY

Global Multiplayer

Challenging towards Global Top Company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어머니는
“우리 딸 손맛이 최고네”
소개팅을 시켜주면, 친구는
“내 취향은 니가 제일 잘 안다”
회식장소를 예약하면, 부장님은
“권과장이 고르는 집은 항상 최고야!”
참치캔을 따주면, 고양이는
“나옹! 나아옹!!”
주어진 모든 역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다
마치 효성이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효성에서 일한다

타이어코드 세계 1위
스판덱스 세계 1위
소형 ATM 세계 1위

(주)효성 산업자재PG
권유리 과장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화제의 동문

아시아N 李相起발행인

아시아N 李相起(서양사학81-87)발행인이 최근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황금보트상을 받았다. 황금보트상은 아랍문화 교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李동문이 한국인으로는 첫 수상자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알 사우드(Khaled bin Faysal Al Saud)왕자, 이집트 모피에드 시합(Mofeed Shihab)前장관, 인도 사이드 자항기르(Sayed Jahanghir)교수 등이 함께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낸 李동문은 아시아 전문 온라인매체 아시아N(www.theasian.asia)과 월간 ‘매거진N’을 창간해 다른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아랍사회를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아랍어판을 개설하고 아랍권 대표시인인 수아드 알 사바(Suad Al-Sabah) 쿠웨이트 공주의 시집을 ‘쿠웨이트 여자’로 출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시아 전문지 ‘매거진N’ 발행

지난 4월 30일 서울 혜화동 한 음식점에서 만난 李동문은 “쿠웨이트 정부에서 매년 아랍권 언론인 및 관련 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알 아라비 매거진 포럼’을 여는데 그 행사에 참가해 이 상을 받았다”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황금보트상 수상
한국과 아랍권 가교 역할 높이 평가

고 전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실크로드를 달린 아랍문화’였습니다. 1천5백여 년 전부터 아랍과 동아시아를 이어준 실크로드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포럼이었죠. 쿠웨이트를 비롯해 아랍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왕성하게 성장하는 동아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관심도 적고 잘 모르죠. 배우고 협력할 것이 많습니다. ‘룩 아랍(Look Arab)’의 가치를 내걸고 아랍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李동문이 아랍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시아기자협회 창립 당시 쿠웨이트, UAE 등 아랍권 기자들을 만나면서부터다.

협회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국기자협회장 제직 중인 2004년 아시아기자협회를 창립했어요. 처음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 국가 기자 중심으로 협회가 구성됐는데 창립 2~3년 뒤 쿠웨이트, UAE 등 중동 국가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위해 범위가 넓어졌죠. 이들과 교류하면서 아랍사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요. 신앙을 지키려는 경건한 태도에서 배운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시아N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시아기자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먼저 온라인 매체를 창간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월간 매거진N도 발행하고 있죠.”

한국 및 아시아기자협회장 지내

潘基文 UN사무총장은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아시아N 창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아N이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교류를 통해 이 지역 국가 및 사람들 간에 공통의 목표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鄭範九 前국회의원은 매거진N에 대해 “아시아적 보편성에 대해 이토록 명확하게 설명해 준 잡지는 여태껏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李동문은 다음 달 매거진N 창간 1주년을 맞아 동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세계화를 외치지만 실제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해요. 한국도 머지않아 다문화사회가 될 겁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죠.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평화로운 공동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매거진N이 그 길잡이가 돼 드릴 겁니다. 많이 봐 주십시오.”

李동문은 한겨레신문 공채 1기로 입사해 2010년 선임기자로 마감했고, 2002~2005년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냈다. 저서로 ‘요즘 한국기자들(김은강)’, ‘그때 떠난 자리에 별이 뜨고(김은강)’ 등이 있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李孝元교수

朴槿惠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과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李孝元(공법83-87)교수가 통일 전문가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李孝元동문에게는 ‘국내 통일법 교수 1호’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닌다. 국내에 통일법이란 전공이 없던 2007년 당시 모교 교수로 부임해 통일법 전공을 만들고 강좌를 개설하는 등 제도화를 시켰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그의 주도로 모교에 헌법·통일법센터가 설립됐다. 지난 3월에는 ‘통일법 총서1: 통일법의 이해’를 발간했고, 학부생들의 요구에 따라 통일법 공개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통일법 공개강좌 개설도

지난 4월 22일 관악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李동문은 막 독일 출장을 다녀온 직후였지만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李동문은 “북한 문화재 관련 워크숍이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열려서 다녀왔다”며 반갑게 기자를 맞이했다.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계도 합니다. 남북 현실이 이렇게 논의될 만큼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이렇수록 한 템포 쉬어가면서 통일법 연구에 매진해야겠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통일법이란 뭘까? 책 ‘통일법의 이해’에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공안검사서 국내 첫 통일법 교수로 변신
“통일 머지 않아…법제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을 규율하는 일련의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통일법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하는 수단이다. 이와 동시에 통일 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규범적 기준이 기도 하다’고 적혀 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통일법이 아직 독자적인 학문으로 확립되지 않아 범주 설정에 어려운 면이 있죠. 통일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분단 상태에서 교류협력, 통일이 완성된 다음 법률 통합, 사회심리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모두 통일법 범주에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남북합의서, 개성공업지구·북한이탈주민 관련법, 북한 인권법,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이 있죠.”

설명을 듣다 문득 6·25전쟁 때 북에서 남한으로 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통일 이후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졌다.

“독일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가 몰락할 당시 우리에게 독일이 통일 모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또 독일과 달리 우리는 전쟁을 겪고 근대국가를 공유하지 못

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독일 모델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북한의 경우 토지대장이 일제 청산 작업을 거치며 대부분 소멸했어요. 법적으로 소급작용이 바람직하기에 대한 의문, 두 번째 현실적인 증명의 문제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통일 기획요원으로 선발되기도

李동문이 통일법 학자가 된 과정이 특이하다. 대학 졸업 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통일부의 통일대비 기획요원으로 선발돼 체코에서 ‘공산당 치하 피

해 국민의 회복 지원’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통일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로 복귀한 후 다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으로 연수를 떠나 ‘독일 통일 10년의 법적 통합’에 대한 주제로 1년간 공부했다.

결정적으로 그가 통일법 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2003~2006년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에서 근무하면서부터다. 북을 적으로 대하는 공안검사로 10여 년을 활동하다 정반대의 위치에서 남북 합의서와 교류협력법 등 각종 협의서 체결을 위해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본질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북문제가 정치영역이 아닌 법치주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시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해 직접 뛰어들어 모교 金哲洙·成樂眞교수의 지도 하에 통일법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李동문은 “통일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주제별로 선별해 책자로 계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떤 정권도 핵이나 식량지원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북한에도 변화가 올 겁니다.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일법 총서를 발간해 법제도면에서 그 책들을 보고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이건 모르고 있었네’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南)

화제의 동문



부산경상대학교

Knowing, Surprising! Kyung Sang!

총장 이달덕
영어교육과 70학번

개그우먼 신봉선
부산경상대학교
방송엔터테이너 모델계열 99학번

1등 대학을 향한
부산경상대학교의
열정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고등직업 교육품질 인증대학
인증유효기간 : 2013. 1. 25 ~ 2018. 1. 24(5년2주)

2013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2012년, 2013년 2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총 53억원 지원
2년연속 교육부 교육역량우수대학 선정

2012년, 2013년 부산시 선정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대학

6년 연속 등록금 동결 및 인하!
2013학년도 장학금 총 69억원 지급!

부산경상대학교는 '등록금 걱정 없는 학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www.bsks.ac.kr
m.bsks.ac.kr

입학안내 051)850-1210

학교법인 화신학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화신사이버대학교
HWAHSHIN CYBER UNIVERSITY

부산외국어고등학교
PUSAN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공익법인
부산경상대학교부속유치원
BUSAN KYUNGANG COLLEGE LAB KINDERGARTEN

연산역

수영역

충렬사역

www.shwa.co.kr

Future Dream Utopia

글로벌 물류·유통의 리더 - 승화산업(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F&B사업(Food & Beverage)

2014년 1월 기준으로 할리스커피, 엔젤리너스, 투썸플레이스 등 종합 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수의 상업지역과 고속도로휴게소 및 대형마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햄버거 전문사업(버거킹 여주휴게소점, 버거킹 서초역점)에도 진출하였습니다.

미디어사업부

2012년 일본 최대한류 케이블 KNTV를 인수하였고 2013년에는 티모Japan, (주)파워엔터테인먼트, (주)에이인미디어를 종속회사로 편입하여 본격적인 엔터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제작하였으며, 아이돌 그룹 틴탑 (TEEN TOP) 일본투어 공연도 진행하였습니다.

포워딩(Forwarding)

화물의 조달, 생산, 판매 흐름 속 물류의 개념은 과거 비용의 개념에서 벗어나 화물의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분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만들어가는 물류의 신개념과 함께 승화산업(주)는 고객사의 물류비 절감 및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아래, 3PL 및 4PL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 물류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승화산업(주)
SEUNGHWA Industry Corp.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 **김 세 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7 청호빌딩 4F
TEL : 02-6277-9780 FAX : 02 3283 7979
E-mail : skim344@naver.c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회장 김 수 광

www.isungho.com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환경을 소중히 하는 기업!
무한대의 비전으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 철스크랩 - 제강용 철스크랩, 생철압축, 분철압축, 주물분철압축, 커버재
- 쇼트볼 - Steel Shot, Steel Grit
- 절단/전처리 - CNC게스 / 프라즈마 절단 가공
- 철강유통 - 철근, 형강류 등의 철강재 유통
- 자동차부품가공 - HUB CLUTCH, DOOR SUB ASS'Y, OIL PUMP류, BRK' T류, DISK, DRUM, T/K류
- 주조 - 자동차 엔진 및 건설, 선박, 중장비, 산업용 주철 부품
- 건설사업 - 공장, 주택, 공동주택, 신축 및 증축, 개보수 공사
- 리조트사업 - 이스트힐리조트



(주)성호기업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아리 천북지방산업단지 12-22번지 TEL. 054. 774. 8282 FAX. 054. 771. 9200, 4152

WWW.dokor.com

전기도 정수기가 필요합니다

디지털기기, 비선형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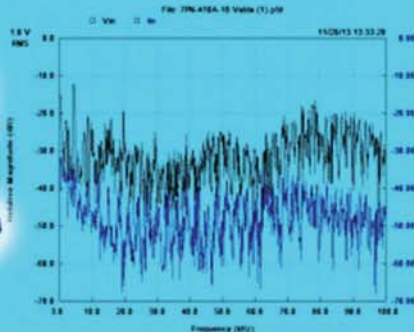
인버터는 노이즈 발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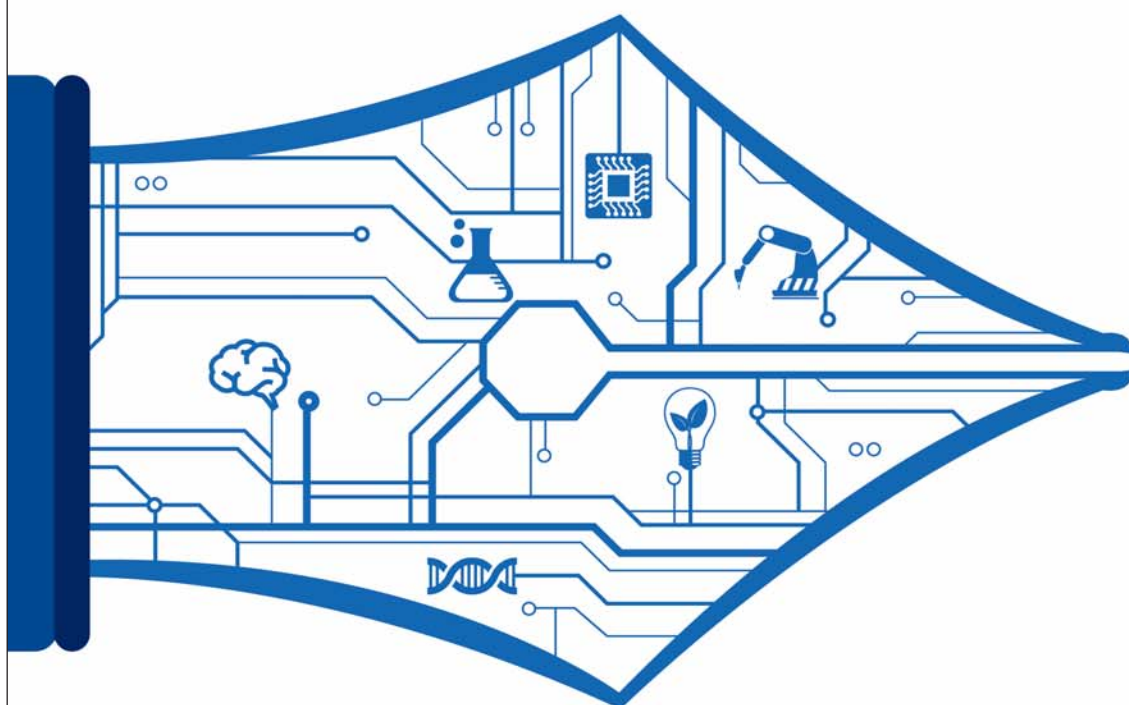
EP-2500

비접지식 고주파노이즈, 서지흡수기

인버터의 친구 EP가 답입니다



dokor (주) 도일코리아
☎ 02-514-3501



10년의 열정으로 위대한 100년을 준비하는 연구중심대학!

융복합 교육·연구를 통해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게 될 DGIST가 Great Innovation을 만들어 갑니다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www.dgist.ac.kr



모교 吳然天총장, 동경대 하마다 준이치(濱田純一) 총장

동경대 내 ‘서울대 사무소’ 개소

양교간 교류 강화 위한 첫 걸음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4월 14일 일본 동경대에서 ‘서울대학교 동경대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吳然天총장, 成老鉉연구처장,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朴喆熙일본연구소장, 鄭鍾昊국제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경대에서 열린 ‘서울대-동경대 연석회의’에서 연구 및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교 캠퍼스 내 사무소 설립

합의에 따른 것이다.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사무소 상호교환은 서울대와 동경대 간의 깊은 신뢰를 토대로 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최고 대학의 두뇌들이 협력해 개별적 이익을 뛰어넘는 시대적 공통의 이익,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향후 교내에 동경대 사무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56대 총학생회 회장에 자연대 李慶桓군 선출



모교 총학생회 제56대 회장에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李慶桓(물리천문

05입)군(사진), 부회장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金예나(국문10입)양이 선출됐다.

총학생회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4~7일 관악·연건캠퍼스에서 연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디테일’ 선거운동본부의 李慶桓·金예나 후보가 최종투표율 51.95%, 득표율 52.80%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투표를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무산된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재선거에서 투표율 47.6%를 기록, 연장투표에서 투표율 50%를 넘기며 성사됐다.

‘디테일’ 선거운동본부는 “당신을 위한 구체적 약속”이라는 슬로건 하에 자취생 길라잡이 책자 발간, 식당 메뉴 공모전, 창업휴학제 도입 등 학생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빅데이터연구원 개원

초학제적 연구로 인재양성 목표

빅데이터연구원(원장 車相均)은 지난 4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개원식 및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吳然天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교육부 羅承日(농업교육81-85)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 尹宗錄(AMP 54기)제2차관의 축사, 전국은행연합회 朴炳元(법학71-75)회장의 격려사, 車相均원장의 연구원 소개와 특별 연사의 개원 강연이 이어졌다.

빅데이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원 강연은 미국 스탠퍼드대 黃勝進(섬유공학74졸)석좌교수, 일본

동경대 마사루 키츠레가와 교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라키쉬 아그라왈(Rakesh Agrawal) 박사, 미국 스톰벤처스 남태희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빅데이터연구원은 지난 2012년 설립된 컴퓨터공학부 컴퓨터연구소 산하의 ‘빅데이터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학내 연구진의 전문지식과 빅데이터 제반기술을 접목해 공학은 물론 인문, 사회,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디딤돌이 될 초학제적 연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韓中錫교수, 李在一원장, 페 땃 킨 보건부 장관, 땃 짜우 윈 보건부 의과학국장, 李勝杓기획부원장, 白大日교수

미얀마와 교류 협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원장 李在一)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미얀마 현지 보건부 및 보건부 산하 양곤치과대학을 방문해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李在一원장, 李勝杓기획부원장, 白大日·韓中錫교수는 양곤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시설을 탐방하고 현지 진료 실태를 파악했다.

또 페 땃 킨(Pe Thet khin) 보

건부 장관과 떼인 큐(Thein Kyu) 양곤치과대학장을 접견해 양교 간 교수 및 학생 교류 실행, 공동 연구 추진, 양곤치과대학 인력 양성 지원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적 관계를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모교는 미얀마 현지에 의약품 전달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양곤치과대학 교수 1명을 모교 치의학대학원으로 초빙해 박사학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장학금과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는 등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총장 후보 3명 확정

〈1면에 이어〉

모교 총장 후보에 선정된 3명의 교수는 소견발표회와 정책평가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물리천문학부 吳世正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문과 지성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며 “정책지식 연구원을 설립해 미래 과제의 통합적 연구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료공학부 姜泰普교수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SNU C&D(Connect

& Development)를 설립하고, 4천억 이상의 자율성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법학부 成樂寅교수는 “인간성 회복과 인간 존엄이라는 지성인 최고 덕목의 구현을 목표로 선한 인재를 양성하며, 모교의 모든 법인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모교 이사회에서는 오는 6월 중 총장 후보 3명 중 1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선임할 예정이다. 선임된 후보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 요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오는 7월 20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秀)

가맹점 모집문의 02-2144-7037

으랏차차!
농협홍삼

농협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홍삼을 대표하겠습니다

농협홍삼인의 새 이름
농협홍삼

농협홍삼이 '농협홍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농협홍삼의 대표브랜드 '한삼인'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홍삼순액
36시간 저온 추출한 국내산 6년근 홍삼외에는
아무것도 다하지 않은 100% 홍삼추출액
70ml x 30포 : 80,000원
70ml x 60포 : 145,000원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개관

학내·산학 소통의 장 역할

모교는 지난 4월 22일 관악캠퍼스 64동 2층 테라스에서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朴明珍 前교육부총장, 邊昌九 교육부총장, 任廷基 기획부총장,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사회과학대학 朴贊郁학과장과 인문정보학과 文昌克·鄭興寶조빙교수, 기업은행 權善珠행장과 임원진 및 한국전쟁기념재단 金仁圭이사장, 관악언론인회 裴仁俊회장을 비롯해 한국방송기자클럽 梁英喆회장, 한국발명진흥회 趙殷英부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吳然天총장이 權善珠행장에게 감사패, 鄭興寶조빙교수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權善珠행장의 인사말과 裴仁俊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IBK 커뮤니케이션센터’는 기업은행에서 건립기금 50억원을 출연해 연면적 2천6백59㎡, 지하 1



權善珠기업은행장, 吳然天총장

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다. 센터 내에 사회과학대 언론정보학과 의 연구·강의 공간을 조성했으며, 1층에는 IBK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창업을 원하는 인재와 중소기업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교는 기업은행과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특허기술 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모교는 발굴된 기업에 특허기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스코필드 박사 서거 44주기

추모 특강·장학금 전달식 개최

모교는 지난 4월 11일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서거 44주기를 맞아 제12회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식을 열었다.

모교와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회장 劉進)가 함께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서 모교 吳然天총장의 기념사와 수의과대학 柳判童학장의 추모사가 있었으며, 이어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鄭雲燦명예회장이 관악구 및 수원시 중학생 3명과 모교 수의학과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우당장학회 李鍾贊이사장,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 金顯英(수의학58-62)조빙교수가 특별

강연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기념사에서 “스코필드 박사는 인간애에 기초해 철저한 인류애를 발휘한 진정한 세계인”이라고 말했다.

스코필드(한국명 石虎淵)박사는 3·1 독립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로서 당시의 시대상을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증언해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1958년부터 모교 수의과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1970년 별세하기까지 한국의 고아와 어려운 학생을 돌보는 일에 여생을 바쳤다. 이러한 공로로 외국인 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으며,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삼성생명보험과 MOU

의과대학

의과대학(학장 姜大熙)은 지난 4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삼성생명보험과 의학발전을 위한 업무협조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으로 양 기관은 국

제보건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의료 인력에 대한 후속 교육 사업을 통해 국제보건의료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데 협력하게 된다.

모교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삼성생명보험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秀)

재학생의 소리



“직접 글 쓰며 문학세계 공유”

‘소설처럼 살다 시처럼 죽고 싶다.’

위 문장은 관악 유일의 중앙 문학 동아리인 총문학연구회의 신입 모집 글귀입니다.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그라져 가는 요즘 총문학연구회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문학사랑을 즐겁고도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동아리입니다.

문학은 무엇일까요. 저희 총문학연구회는 그런 거창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방식은 모두가 달라, 시를 노래하고 소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총문학연구회 안에서는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같은 文友입니다.

총문학연구회는 1979년에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그리 길지 않은 역사일 수도 있으나 지금껏 수많은 선배님들이 달과 사회를 가리키며 총문학연구회를 지나쳐 갔습

니다. 물론 격동기의 사회를 지나면서 문학의 시대성을 외면하지 않았던 총문학연구회는 충실히 자신만의 여정을 보내며 시대정신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지금의 총문학연구회는 문학에 대한 순



수한 열정으로 관악에 남아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단 문학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문학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안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도 하며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담요를 선물받기도 합니다. 일주일마

다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회원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직접 쓴 글을 공유하면서, 합평을 통해 각자의 문학세계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지를 발간하기도 하고 문학의 밤을 보내며 우애를 다지기도 합니다.

金 瑾 熙(산업공학09입)
총문학연구회 회장

이렇듯 총문학연구회는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서울대 유일의 중앙 문학 동아리인 만큼, 꽃이 필 때 꽃을 노래할 수 있는, 문학이 건재한 관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하겠습니다. 총문학연구회에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삶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원물을 듬뿍 넣어 크림 스파게티의 진한 풍미를 살린 프레시안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로 시작합니다

프레시안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소스 중 생크림, 47% 치즈, 우유, 베이컨 총 함량 77.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건강증진실' 확장 OPEN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건강증진실(스케일링 센터)』에는
구강검진과 치석제거를 위한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고,
전담 창구를 통해 예약, 상담, 진료 절차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증진실』은 누구나 전화 예약으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메디컬코리아대상 4년 연속
글로벌의료서비스대상 3년 연속



2013 국립대병원 청렴도 1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평가 (46개 공공의료기관 실시)



구강검진(스케일링) 상담 02-2072-3868

구강검진(스케일링) 예약 문의 02-2072-3114

www.snudh.org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Hanwaha



www.audien.com

음악처럼 노래처럼 라디오속
누군가의 사연처럼
책, 듣기.



Hansol
한솔이앤엠
Hansol
한솔인터큐브

오디언 오디오북은?
베스트셀러 등 다양한 장르의 종이 책을
전문 성우가 직접 읽어 주는 귀로 듣는 책입니다.



음악보다 즐거운 신개념 독서관상법
감성 디지털 오디오북
오디언 앱 으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콩트 릴레이

長官이 아닙니다

高 承 徹(경영75-80)

내남출판 대표·소설가



“허 장관님!”

경쾌한 소프라노 목소리가 들리기에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 학교 재단이사장의 만만한 기악과 S교수였다. ‘차기 이사장 후보 0순위’라는 그녀가 무명 교수에 불과한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 줄이야!

나에 대한 이런 호칭은 옳지 않다. 하지만 딱히 틀리지도 않다. 위원장이 장관급인 ‘민족얼 高揚위원회’의 좌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방 사립대학의 교수인 내 이름 뒤에 ‘장관급’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그때부터 으레 ‘장관님!’으로 불렸다.

현 정권의 실세인 K실장과 대학 시절 같

게 권력중독증인가.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조찬강연회에 가니 강연료가 5배쯤으로 뛰었다. ‘선비상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마찬가지로인데…, 여기저기서 특강 초청이 계속 들어왔다. 좌석은 꼭 찼고 강연을 마치면 나와 사진을 함께 찍자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지방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의 원고료도 갑절로 올랐다. 칼럼이 게재된 직후 “감명 깊게 읽었다”며 전화, 이메일로 문안하는 독자도 부쩍 늘었다. 이윽고 ‘중앙지’ 몇 군데서도 원고 청탁을 했다. 내 얼굴 사진과 글이 실린 D일보를 본 노모는 그 칼럼을

내가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확대해

현수막 아래에 걸어놓았다.

정식 장관도 아니고,

취임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마치 진짜 장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일러스테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은 하숙방 룸메이트라는 인연 덕분에 감투를 썼다. 흠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가난한 수재인 그를 위해 나는 몇 달치 하숙비를 대신 내준 적이 있다. 군부독재에 저항한 그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때 나는 그의 남동생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는 훗날 이렇게 報恩한 것이다. 어느 신문은 내 프로필을 소개하면서 ‘K실장의 숨겨진 브레인’이라 표현했다.

허울뿐인 장관급 위원장이지만 위력은 대단했다. 교수 모임에서 내 좌석은 총장과 나란히 앉은 上席으로 배치됐다. 고교 4년 선배인 L학장이 떨쳐감치 떨어진 하석에서 뜨거운 눈초리로 나를 찌려보는 모습이 어른거리며 죄송하고 축소려웠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곧 익숙해졌다.

재단이사회에서 나를 예우한다며 운전기사가 딸린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했다. 어느 모임에 가도 ‘한 말씀 하시도록’ 마이크가 주어졌다. 나는 언제든지 즉석 스피치 또는 건배사를 할 준비를 했다. 사회자가 간혹 마이크를 주지 않으면 서운해졌다. 이런

비닐로 코팅해 선진 묘소에 갖고 가 영전에 올렸다고 한다. 선친은 D일보의 40년간 독자였다.

나의 졸저 ‘퇴계와 율곡’도 1쇄 재고가 다 팔려 2쇄, 3쇄를 연이어 찍었다. 대학 후배가 경영하는 출판사에서 1쇄 2천권을 찍은 후 거의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 큰 빚을 졌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만회한 것이다. 1쇄 판매분 8백권 가운데 내가 구입해 지인들에게 나눠준 것이 6백권이니 상업판매 실적은 2백권에 불과했었다. 2쇄 책에는 표지를 감싸는 띠지에 ‘민족얼 고양위원회 위원장 허풍신 장관의 필생의力作!’이라는 문구가 있어 나를 민망케 했다. 출판사 사장에게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다.

“4쇄에서는 띠지를 빼시게! 낮이 뜨거워서…”

“그것 덕분에 책이 팔리는데요? 제 사정도 봐 주십시오. 선배님, 아니 장관님 임…”

더 민망한 일도 있었다. 여든이 넘은 숙부께서 증친회 모임에 꼭 나와 문중 어른들

께 인사드려야 한다고 強講하기에 난생처음 가봤다. 행사장인 호텔 연회장에 들어가니 ‘허풍신 장관 취임 축하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내가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확대해 현수막 아래에 걸어놓았다. 정식 장관도 아니고, 취임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내가 마치 진짜 장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도포 차림의 어느 어르신은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입향조 이후에 문중에 처음 나온 판서”라고 인사했다. 장관급이니 판서라고 부른 것이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예측불가한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초등학교 동기회에 꼭 나오거래이. 내가 주인공인게 빠지면 안 된다, 알겠제?”

연구실로 걸려온 전화에서 초등학교 동기회장 정운희가 그렇게 다그쳤다.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린다. 졸업 이후 한번도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엔 나가지 않았다. 정운희라는 여자 동기생의 얼굴도 기억에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그녀의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은 同名異人인 여배우 때문이다. 스타 정운희가 활약할 때 동기생 정운희가 가끔 연상되곤 했었다. 교문에는 ‘허풍신 장관, 졸업 40주년 홈커밍데이 방문!’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교장

국철학과를 폐쇄할 공작을 꾸민다기에 내가 이사장을 만나 얼굴을 붉히며 입씨름을 벌인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이사장 저택으로 가니 부인이 한복을 입고 나와 영접한다. 기악과 S교수는 나와 무척 친근한 사이인 것처럼 반색했고 허우대가 멀썩한 자기 남편을 소개했다.

“허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의 존대 어투가 나에겐 어색했다. 아내는 하늘같이 높은 이사장 부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번쩍거리는 銀製 접시에 담겨 나오는 앙식 풀코스 요리…, 이 요리에 잘 어울리는 프랑스 와인을 준비했다는 이사장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니 술맛이 떨어졌다. S교수는 어깨가 흰히 드러난 연주복 차림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푸당과 커피가 디저트로 나왔을 때 이사장은 본색을 드러냈다.

“K실장과 절친한 사이라면서요? 저희 사위… 온실에 자라서 세상 물정도 익히게 할 겸, 사회에 봉사도 할 겸해서 험한 일을 시키려 하는데…”

사위를 K실장에게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번 시장 선거에 나가려 하는데 여당 후보로 공천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것이다. 고급 건달로 보이는 사위가 시장 후보를 꿈꾸다니 가당치도 없다.

“허 장관님께서도 학교에 오래 봉직하셨으니 이제 총장으로 활약하실 때도 됐지요?”

S교수가 내 접시에 과일을 얹어주며 말했다. 자기 남편의 뒷배를 잘 봐주면 나를 차기 총장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언짢이었다.

며칠 후 신문을 보고 사위가 낙선했음을 알았다. K실장에게 부탁할 처지가 못 된다고 버텼으나 이사장은 끈질기게 나를 압박한 바 있다. 이사장이 섭섭함을 토로하는 연락을 하지 않아 오히려 불안했다.

부활절 아침, 성당에 가려고 넥타이를 매고 새 구두를 신었다. 집을 나서려는데 아내가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에게 따져 물었다. 초등학교 동창회에 1천만원을 내기로 약속했느냐고? 그런 일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자 동창회 카페 사이트에 내가 발전기금을 낸다는 소식이 떴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정운희가 멋대로 그렇게 썼다.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전날 일을 털어놓았다.

“대학교수 부인이려면 호의호식하는 줄 아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벌써 몇 년째 일하잖아. 어제 잘렸어. 장관 부인을 파출부로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아내를 겨우 달래 함께 성당에 갔다.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라’는 강론을 듣는 중에 S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못 신자들의 눈치를 보며 성당 밖으로 나왔다.

“대낮에 부녀자들과 흥청망청 술판을 벌인 게 사실인가요?”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얼굴을 내비쳤을 뿐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술자리 사진이 떠서 학교가 개망신이에요.”

“그게, 사실은…”

“내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 테니까 소명은 그 자리에서 하세요. 장관이라는 者가 처신을 그 따위로 하다니…”

“저는 장관이 아닙니다!”

동 정

수 상

▲李龍兌(물리53-57 퇴계학연구원·숙명학원 이사장)=지난 4월 16일 21세기대상 시상위원회로부터 제29회 21세기대상 특별상 수상.

▲朴相大(동물56-6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지난 4월 21일 제4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부문 1등급 훈장인 창조장 수훈.

▲曹南鉉(국문66-70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문학평론가)=지난 4월 25일 于湖(申鉉禧)문화재단으로부터 우호인문학상 수상.

▲禹相善(섬유공학68-72 효성기술원장 사장)=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14년 기술경영인상(CTO 부문) 수상.

▲金常洙(기계공학69-73 KAIST 교수)=지난 4월 21일 제4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수훈.

▲李英白(원자핵공학71-75 한양대 교수)=지난 4월 24일 한국물리학회로부터 성봉물리학상 수상.

▲金貳煥(신대원72-7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장)=지난 4월 21일 제4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 수상.

▲成亨鎭(기계공학74-78 KAIST 교수)=지난 5월 7일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3회 수당상(응용과학부문) 수상.

▲黃焘性(영문79졸 동국대 교수)=지난 4월 25일 于湖(申鉉禧)문화재단으로부터 우호인문학상 수상.

▲金恩珠(불문80-84 연합뉴스논설위원)=지난 5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1회 崔恩禧여기자상 수상.

▲金載城(영어교육82입 의정부센프란시스코 치과 원장)=지난 5월 7일 제46회 소천아동문학상 시상식에서 장편 동화 ‘드래곤 덴티스트’로 제9회 신인상 수상.

▲李碩祐(동양사학84-88 카카오 사장)=지난 4월 16일 21세기대상 시상위원회로부터 제29회 21세기대상(기획부문) 수상.

▲薛均泰(행정88-90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위원장)=최근 백두산문인협회로부터 신인문학상(수필 부문) 수상.

▲張晉榮(의학89-94 모교 외과학교실 교수)=최근 제11차 세계간담학회 학술대회에서 2천원이 넘는 연재 중에서 국내 최초로 최우수 구연상 수상.

▲曹廷堯(사법90-95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지난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金先圭(MBA10-12 대한주택보증 사장)=최근 제10회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보증보험부문 대상 수상.

▲尹錫厚(농화학73-77 前한국식품연구원장·오펜 고문)=최근 미국식품과학회(IFIT) 석학회원에 선임.

▲崔楠燮(치의학73-79 최남섭치과 원장)=지난 4월 26일 임기 3년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회장에 선출.

▲金九榮(지질과학74-78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본부장)=지난 4월 18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金成勳(교육74-78 前한국교육평가학회·동국대 교수)=지난 4월 11일 임기 3년의 한국교육과정평가위원장에 임명.

▲嚴賢澤(사회75-79 前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지난 4월 2일 임기 3년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선임.

▲朴賢愛(간호76-80 모교 간호대학장)=최근 임기 1년의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제29대 회장에 선출.

▲李恩泰(경제78-83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지난 4월 16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공시담당 부원장보에 임명.

▲趙泰玄(대학원79-83 가촌경영연구소장·사이버한국외대 강의교수)=최근 임기 2년의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부회장에 위촉.

▲李惟美(임학81-85 국립수목원 임업연구관)=지난 4월 21일 광릉숲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전·관리를 총괄하는 국립수목원장에 임명.

▲尹柄喆(사법81-85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지난 4월 3일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 제3대 회장에 취임.

▲許東勳(경제82-88 前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실장)=지난 4월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대 원장에 선임.

▲千海成(공법83-87 前통일부 통일정책실장·前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지난 4월 9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에 임명.

인 사

▲金春玉(회화64-68 화가·인하대 겸임교수)=최근 임기 3년의 재단법인 아름다운 맵 이사장에 선임.

▲文東厚(행정67-7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지난 4월 17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운영 부위원장에 임명.

▲洪斗承(사회68-72 모교 사회학과 교수)=최근 창립한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 이사장에 선임.

▲許元齊(물리70-74·정치76-78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지난 4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에 선출.

▲李允浩(경영73-77 前쌍용정보통신 사장·쌍용양회 사장)=지난 4월 22일 한국시멘트협회 제27대 회장에 선임.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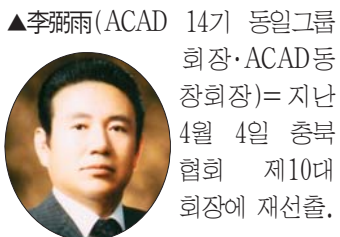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李弼雨(ACAD 14기 통일그룹 회장·ACAD동창회장)=지난 4월 4일 충북 협회 제10대 회장에 재선출.

▲金振珪(HPM 6기 한국일보 오피니언 담당 부국장 겸 선임기자)=지난 4월 10일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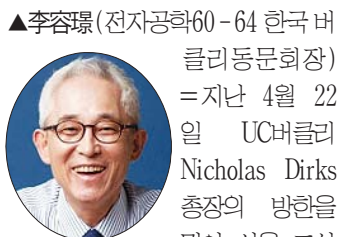
▲朴俊俊(ALP 8기 前다이와증권 서울지점 고문·금융감독원 부원장보)=지난 4월 16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

행 사

▲趙守鎬(회화47-51 한국국제서법연맹 총재)=지난 4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기증작가 초대 전II' 개최.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4월 23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동기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보인다'를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姜信盛(영문55-60 前절레 대사·소설가)=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 '고도를 찾아서'(아르떼刊) 출간.



▲李容環(전자공학60-64 한국버클리동문회장)=지난 4월 22일 UC버클리 Nicholas Dirks 총장의 방한을 맞아 서울 조선 호텔에서 환영 리셉션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 회장)=지난 4월 30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崔賀敬(독어교육64-68 우리문화유산알림이사장)=오는 5월 2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외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문화유산알림이 교육과정 실시.

▲金泳植(외교65-69 세종대 명예교수)=최근 정부학을 다룬 이론서 '정부학 서설'(대영문화사刊) 개정판 출간.

▲朴憲烈(화학공학67-71 국제화학회장)=지난 4월 5일 서울 신도림동 디큐브아카데미에서 '창의력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宋大晟(외교69-73 세종연구소장)=지난 4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

국의 통일전략'을 주제로 제28차 세종 국가전략포럼 개최.

▲李光澤(행정68-75 국민대 명예교수·국제노동사회법학회 부회장)=지난 4월 14일 후학들로부터 정년기념논문집 '복지사회를 위한 노동사회법과 노사관계'를 봉정 받음.

▲郭贊浩(신대원69-71 일본 纖維新聞사 한국주재기자)=최근 京東新聞에 '개성공단 봄이 왔다', 新亞日報에 '한미FTA 발효 2년 성과 광목' 주제의 논설 게재.

▲申成澈(응용물리71-75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지난 4월 28일 대구시 달성군 DGIST 대학본부에서 학사캠퍼스 준공식 개최.

▲尹昌昌(임학74-79 모교 산림과학부 교수·한국임학회 회장)=지난 4월 18일 서울 양재동 The-K서울 호텔에서 아시아 산림경관 복원

방안 심포지엄 개최.
▲尹榮和(기악76-80 국민대 교수·피아니스트)=오는 5월 2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테너 朴鎮亨(성악89-93 계원예고 교사)동문의 협연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趙石(외교77-8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지난 4월 3일 모교 공대 멀티미디어 강당에서 '대한민국 에너지의 핵심동력'을 주제로 에너지 토크 콘서트 개최.

▲皮虎英(기악79-83 성신여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5월 7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그리그 소나타 전곡 연주회 개최.

▲辛秀卿(기악80-84 전남대 교수·피아니스트)=오는 5월 17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쇼팽,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손연지(기악93-97 오보이스트)=지난 5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체임버홀에서 헨델, 로렐, 마르티누 등의 작품으로 귀국 오보에 독주회 개최.

▲조은아(기악93-97 경희대 객원교수·피아니스트)=오는 5월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명지대 金時亨(작곡92-97) 교수 작품 등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鄭珉珩(기악99-03 피아니스트)=지난 4월 1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리스트의 음악과 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徐廷權(ACAD 2기 일우선박 회장)=지난 4월 4일 미국 링컨대학우여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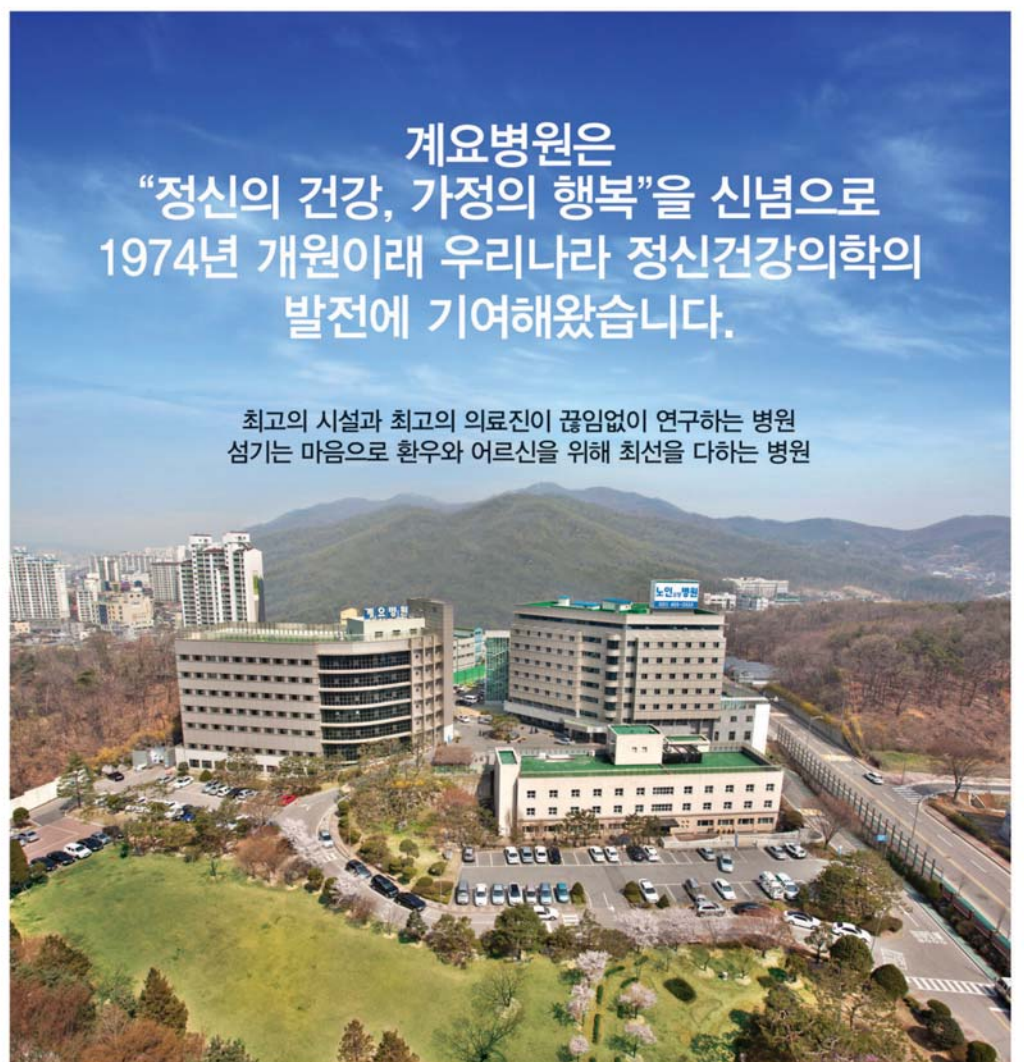
▲李沁(ACAD 32기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지난 4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대축제 개최.

I 삼가 명복을 빕니다 I

- ▲朴仁珪(경성법전38졸 前평안남도지사)=4월 4일 별세(98세)
- ▲李載現(농화학46-50 前경기도 농촌진흥원장)=4월 17일 별세(89세)
- ▲趙東華(약학49-54 월간 춤 발행인)=4월 24일 별세(92세)
- ▲陳胃敎(교육54-58 경북대 명예교수)=4월 18일 별세(81세)
- ▲李相翺(국어교육54-58 모교 명예교수)=4월 18일 별세(80세)
- ▲洪享瑛(행정55-61 前외교통상부 장관)=4월 30일 별세(77세)
- ▲朴仁淳(정치60-64 前청와대 공보비서관)=4월 16일 별세(73세)
- ▲洪文信(경제61-65 前한국서부발전 사장)=4월 7일 별세(72세)
- ▲吳鈺珠(금속공학62-72 에코마이스터 회장)=4월 6일 별세(71세)
- ▲金泰京(미학74-85 도서출판 이론과실천 대표)=4월 17일 별세(60세)
- ▲安慶煥(건축76-80 수원대 교수)=4월 11일 별세(58세)
- ▲金憲範(공법84-89 창원지법 거창지원장)=4월 27일 별세(49세)

바로잡습니다 본보 지난 3월 15일자(제432호) 25면 '부음' 기사 중 金英云(국악77졸 한양대 교수)동문은 동명이인이 잘못 게재됐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4월 15일자(제433호) 25면 '부음' 기사 중 金正中(AIP 15기)동문은 모친상으로 바로잡습니다. 본인과 가족·지인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이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계요병원
정신질환클리닉
알코올 및 중독센터
재활치료센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의왕시 정신보건센터

계요노인요양병원
노인성질환클리닉
치매센터
건강누리의왕시노인요양원운영

www.keyo.co.kr



전공의 수련병원



산책로



노인요양원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
정신건강병원 | 노인요양병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왕곡동)
TEL:031-455-3331~8 FAX:031-452-4110

☎ 1588-3883
www.theon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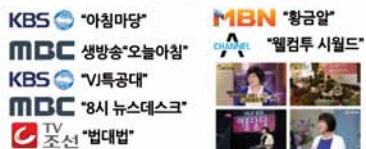
☎ 1588-3883
♠ 더원결혼정보

1등 결혼 약속 결혼, 더~원 해요

와튼 MBA출신이 운영하는 더원
대한민국 대표결혼정보회사

- 서울대 동문과 자녀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무료 미팅파티 초대 : 5/17(메리어트호텔) 문의 1588-3883

TV속 중매고수들



17년 노하우 大賞

- 고객감동브랜드 大賞 2년 연속 (2013,2012) 결혼정보 1위
-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 (2012) 결혼정보 1위
-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2011) 결혼정보 1위
- 올해의 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홍유진 커플매니저 / 더원결혼정보
한국 대표 커플매니저 19년 경력 중매고수
1만건 상담 1,000쌍이상 성혼
KBS 아침마당, MBN 황금알 등 중매고수 출연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 서초 080013

JB 금융지주

고객님께
[행복한 꿈]을 선물합니다
Your Dream Partner
JB전북은행



JB전북은행은 옳은 금융, 착한 금융, 행복한 금융 실천의
고객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 만족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www.jbbank.co.kr

1588 - 4477

JB 전북은행

자연을
자연으로
다시만들어요



자동차가 한라비스테온공조와
만나면 행복한 자연이 됩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에어컨&히터시스템
전문기업 한라비스테온공조는 공조분야의
독자적 기술기반을 확보하여 세계 각국의
명차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HVCC

한라비스테온공조주식회사
Halla Visteon Climate Control Corp.

8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년~2013년 디스플레이서치 기준
세계TV 점유율 1위

곡선으로 인해

디테일은 경이로워지고

입체감은 완벽에 가까워지고

디자인은 더 아름다워지며

컬러는 더 강렬해진다

곡면화질이 만든 압도적 몰입감

삼성 커브드 UHD TV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4등급 | 모델명 : UN65HU9000F

삼성 UHD TV Curved
Ultra High Definition 4K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커브드 스크린
일반 영상도 UHD급 화질로 표현하는 UHD 업스케일링

생생한 입체감을 더해주는 원근 강화 엔진
자연에 가까운 리얼 컬러를 재현하는 퓨어 컬러

삼성전자 SAMSUNG

신 간

■ 평화와 전쟁

－ 權彝赫 지음



문교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관, 환경처 장관, 모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대학원장, 병원장, 총장

등을 역임한 又岡 權彝赫(의학41-47 본회 고문) 명예교수가 望百을 보내면서 펴낸 아홉 번째 에세이집.

朴槿惠대통령의 이모저모, 평화와 전쟁, 아름다운 사제 간의 정분 등 2013년에 쓴 80여 편의 글을 묶었다.

蔡命新장군의 유언,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의 서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 方一榮 前조선일보 고문의 10주기 등에 대해서도 감정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모교 高柄翊 前총장, 李文鎬명예교수 등 그리운 사람들을 추억하며,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아나운서클럽 金東鍵회장, 연세대 金命鎬명예교수, 金炳洙 前연세대 총장, 朴泰源 前인하대 총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慎鏞廈명예교수, 尹誠敏 前국방부장관 등의 삶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했다. 〈신광출판사刊·값22,000원〉

■ 아버지

－ 崔禎鎬 엮고 지음



한국일보·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울산대 崔禎鎬(철학52-57) 석좌교수가 아버지의 시·편지 등 육필을 모으고 아버지를 회고한다. 개인과 역사의 만남으로도 읽힌다.

‘한집안의 밑알 같은 한국 현대사’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의 1부 又下文集은 아버지의 유고를 모은 것으로, 맨 앞에 나오는 ‘詩’는 1924년부터 1936년에 이르는 12년 동안에 쓴 것으로 아버지 나이 19세부터 31세까지, 주로 20대의 젊은 나이에 지은 글이다. ‘書’ 부분에는 서찰들을 담았고, ‘附’에는 대학 졸업논문 초고의 상당부분과 단편소설 습작의 한두 쪽을 복사해서 실었다.

2부 追慕集은 제문과 함께 추모의 글로 엮었다.

한국신문학회장, 한국미래학회장 등을 역임한 崔동문은 2002년에 ‘한독 포럼’의 창립 발기인으로

2010년까지 포럼의 한국측 의장을 맡아 왔다. 〈시그마북스刊·값30,000원〉

■ 눈물의 강산

－ 朴尙植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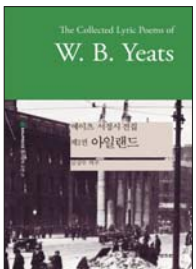
주보스틴

총영사, 주싱가포르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朴尙植(영문54-59) 동문의 자전적 소설. 朴동문은 자신의 인생을 5악장으로 구성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회고한다.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이 5악장으로 구성된 데서 암시를 받았다. 자신의 인생 여정이 베토벤의 산보처럼 유유자적하지는 않았으나, 다섯 개의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1934년부터 1962년까지를 육체적·지적 성장기, 1962년부터 1979년까지를 진리탐구기, 1979년부터 2000년까지를 지적시련기,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를 자신과의 대화기라 부르고 싶었다고 한다.

朴동문은 이 단편집에서 인생의 제1기(제1악장) 후반(1950~1962년)에 겪고 보고 들은 사실들을 자신의 문학관에 입각해 재구성했다.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刊·값15,000원〉

■ 에이츠 서정시 전집

－ 金相武 엮고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세계적 시인인 에이츠의 서정시를 故 金相武(영문54-60 前영남대 교수) 동문이 한데 모아 영한대역으로 번역하고 꼼꼼한 주석을 단 책.

에이츠를 공부하려는 학생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일반 독자에게는 에이츠 시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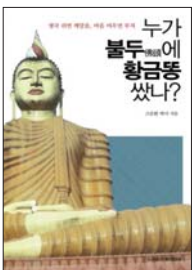
에이츠의 작품에서 희곡과 극시를 제외한 독립된 작품으로 거론되는 총 3백78편의 서정시를 아일랜드, 사랑,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전3권으로 구성했다.

혈통으로는 영국인이었지만 에이츠 스스로 아일랜드인임을 자처하면서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을 주도하고, 정치·문화 일반의 온갖 활동을 전개하면서 쓴 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각 시의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배열하고 최대한 주석을 상세히 달아 작품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번역의 근거를 제시했고, 외국 시도 우리 시처럼

잘 읽히도록 읽을 때의 숨결을 고려해 우리말로 옮겼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2권 30,000원/3권 32,000원〉

■ 누가 佛頭에 황금똥 썼나?

－ 高濬煥 지음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경기대 법정대학장 등을 지낸 본각선교원 高濬煥(법학61-65) 원장이 쓴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

저자에 따르면 우주는 本覺(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이고, 不二中道이며, 열반이며, 적멸이고 부처이니, 중생이 본각으로 살아가려면, 信解行證을 실천해야 한다. 본각은 중생을 떠난 적이 없고, 새롭게 깨달은 始覺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닌 본각이요, 구경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생이 禪教一致로 크게 깨달아 중생불(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성불하는 일이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의 스승이자 대선사요, 유불선의 3절이었던 김탄허 스님이 ‘현토역해 신화엄경합론’ 등 수많은 책을 출간하고 인재양성에 힘쓰다가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를 쓰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반에 들었다. 高동문은 “제자로서 탄허 스님 열반 30주년을 맞아 큰스님 뜻에는 足脫不及이지만, 작은 정성을 바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삼가 말씀드린다”고 출간동기를 밝히고 있다. 〈본각선교刊·값18,000원〉

■ 신발끈 매고 시작하는

서울기행

－ 尹在錫 지음



방송인 尹在錫(화학교육71-75) 본보 논설위원이 ‘신발끈 매고 시작하는 서울기행’을 출간했다. ‘스물다섯 가지 서울을 만나다’라는 副題가 붙은 이 책은 저자가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BMW(Bus, Metro and Walk)로 누비며 탐방한 내용을 서울시가 발행하는 월간지 ‘서울사랑’에 2년여 동안 게재한 후 이를 재구성한 것. 서울의 민낯과 내밀한 속살을 파헤친 이 책자를 따라 서울을 탐방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서울기행이 된다. 특히 모교 탐방 내용이 들어있는 관악구 편에는 모교 개학년도를 1895년으로 복원한 내

공연

■ 윤소임 바이올린 독주회

－ 5월 26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과천시립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으로 활동 중인 윤 동문은 이날 베토벤, 파가니니, 바르토크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姜忠模 & 李蕙全 듀오 연주회

－ 6월 1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姜忠模(기악79-83 미국 줄리어드 음대 교수) 동문(사진左)과 피아니스트 李蕙全(기악79-83 숙명여대 교수) 동문이 6월 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



서 듀오 연주회를 갖는다.

클래식 음악계의 소문난 잉꼬부부인 姜忠模·李蕙全동문은 이날 베토벤, 말러, 라벨,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음연 3436-5929〉

■ 丁銀靜 피아노 독주회

－ 6월 5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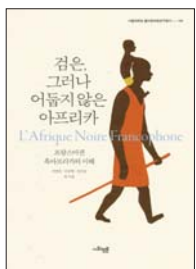
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모교 대학원을 거쳐 독일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丁동문은 이날 쇼팽, 그라나도스, 리스트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음연 3436-5929〉

■ 검은, 그러나

어둠지않은 아프리카

－ 李永睦 외 지음



모교 불어

불문학과 李永睦(불문83-87)교수 등이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을 폭넓게 다룬 책. 8명의 필자들은 아프리카를 기존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1~3장까지는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를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4~8장까지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의 문화, 가족, 영화, 미술 등을 소개하며 이 지역의 역동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모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연구소에서 발간한 불어문화권연구총서 중 두 번째 책으로 기획됐으며, 불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기업계와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내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자원이 되리라 본다. 〈사회평론刊·값20,000원〉

용이 들어 있다. 종로구에서 태어나 5대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토박이(Native Seoulite)로 서울의 인문·역사·지리에 정통한 저자는 2009년 에세이 ‘나의 살던 서울은’을 출간한 바 있다. 〈서울특별사刊·값12,000원〉

■ 낙타의 눈

－ 金龍均 지음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바른 金龍均(법학73-77) 변호사가 산과 함께 한

四季를 소개한 시집을 출간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부로 나눠 소개한 1백여 편의 시를 통해 金동문 삶의 여정 속 깨달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책 말미에 실린 표제작 ‘낙타의 눈’을 소개한다.

짐짓 방울소리 울리지 않는 낙타여, /영락없이 나처럼 인고와 겸손을 치장하고 / 순량한 네 등허리에 올라 고삐 잡은 손들, /수만리길 서방정토의 극락을 헤매어 간다만 / 부처는 정작 네 눈 속에 시퍼런이 살아있고나. 〈리토피아刊·값10,000원〉

〈지면관계로 회비납부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긴 병 앞엔 효자 있다

100세 시대, 종신보험도 달라져야 합니다
긴 병에도 걱정 없는 (무)교보LTC종신보험

길어진 인생만큼 아픈 날도 늘어나기에
우리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치매·간병보장을 더한 교보LTC종신보험이
평생 든든한 효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은 물론 치매·간병도 보장해드리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 - (무)교보LTC종신보험 출시

(무)교보LTC종신보험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가족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해 사망은 물론 치매·간병도 보장해드리는 효자 같은 종신보험입니다 (※LTC : Long Term Care 장기간병보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시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확인필 1-1401-14 (2014.1.15) 생명보험협회 제2014-99호(2014.1.21)


KYOBO
교보생명



KWANJEONG EDUCATIONAL FOUNDATION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www.ikef.or.kr

최고의 인재에게 최대의 지원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조감도

재단을 지원하는 기업(삼영그룹)

- **삼영화학공업(주)** www.sycc.co.kr
세계 초일류 전자필름, 포장필름의 선도 기업
- **삼영중공업(주)** www.syhi.co.kr
조선업의 핵심인 엔진, 선박 부품 및 플랜트 사업
- **삼영산업(주)** www.syctile.co.kr
최고의 품질, 최대 규모의 자부심을 가진 타일 업계의 선두 주자
- **고려애자공업(주)** www.kri-sy.com
국내 유일의 현수애자 제조회사로 세계적인 초초고압애자 생산
- **크라운컨트리클럽** www.jejuccrowncc.co.kr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속에서 즐기는 27홀의 전천후 골프장
- **호텔뉴크라운** www.hotelnewcrown.co.kr
제주도의 바다와 한라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

우수 인재 육성만이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며 사회로부터 획득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하고 2000년 6월 재단을 설립하여 200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출연 자산은 약 8,000억원이며 운용 수입으로 매년 150억원 내외의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유학 장학생에게는 연간 최고 55,000달러, 국내 장학생에게는 연간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